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3월 21일(음력 2월 3일) 수요일 (주간) 제 620 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조계종 제12대 종정

법전 스님 재추대

14일 원로회의서 결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2대 종정추대회의를 열고 현 종정 법전 스님(해인총림 방장 · 사진)을 재추대하기로 결의했다.

도림법전(道林法傳) 스님은 세납 82세, 법랍 68세로 1939년 영광 불갑사에서 설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미계를 수했다. 49년 성철 · 청담 · 향곡 스님과 봉암사 결사에 참여한 이래 제방의 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했다. 스님은 85년부터 해인사에 주석해 왔으며, 96년 해인총림 방장에 추대됐고, 2000년부터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3월 제11대 종정에 추대됐다.

이날 회의에는 종산 지해 보성 도원 지종 활안 녹원 원명 이두 천운 동춘 진제 초우 혜정 고산 스님 등 15명의 원로의원스님과 총무원장 지관, 호계원장 법등,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법전 스님 이력 및 수행일화는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교수 연봉제 실시

단과대 분권형 시스템

강한 혁신 큰 비전

동국대 오영교 총장 '108프로젝트' 발표… 경영 · 연구시스템 개혁 등

'고객 감동, 연봉제, 직원 다면평가…' 기업에서나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 동국대 개혁안에 등장했다.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오영교 동국대 신임 총장이 동국대 개혁에 급시동을 건 것이다.

오 총장은 3월 13일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재임 4년간의 경영방침과 대학 발전 전략 등을 담은 '108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 과제는 '신경영시스템 창출' '교육연구시스템 혁신' '최적의 교육연구환경 구축' '재정확충 및 건전화' '의학교육 및 병원경영 혁신' 등 5개다.



3월 13일 동국대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오영교 동국대 신임총장이 '108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교직원 연봉제 실시다. 동국대 교수들의 급여 수준을 서울시내 상위 5개 대학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내년부터 기본급 70%, 성과급 30%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오 총장은 "동국대는 성과급의 차등폭을 최대한 넓힐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동일 직급에서 최상위자와 최하위자 간 연봉 차가 1000만원 이상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과대학장에게 예산집행은 물론 신임교수 채용을 포함한 교수 인사권을 부여하는 분권형 자율 시스템 도입도 혁신적이다. 이 제도에는 목표 달성 실적과 성과에 따른 책임 평가도 병행된다. 예를 들어 취업률이 낮거나 입학경쟁률이 떨어지는 학과의 경우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학과를 최대한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과감한 교원 평가도 이번 개혁의 빼놓을 수 없는 발전방안 중 하나다. 교수 연구논문의 질과 국제화 교육노력, 산학연구 유치실적, 학생 만족도, 기금 모금 등 철저한 실적 위주의 평가를 벌이기로 했다. 평가결과 성적이 저조한 교수들은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거나 안식년을 제한하겠다는 강경책도 포함돼 있다.

108프로젝트에는 행정조직의 팀제 전환도 들어 있다. 또한 대학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경영부총장을 영입하기로 했다. 총장 직속으로 혁신관리팀과 고객만족 경영팀도 신설하는 등 대학에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한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전자결재시스템과 온라인 회의 및 보고 등을 통해 보고체계도 간소화 시켰다. 이외에도 108프로젝트에는 △영어 강의를 전체강의 30% 수준으로 증설할 것 △신규 교원 영어강의 의무화 할 것 △1만5000평 규모의 산학협력관 착공 등이 들어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

종립학교에 신문보내기 후원금 감사합니다


성수 스님

현성 스님


태응 스님


자승 스님


원택 스님


주영운 이사장

본사가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종립학교 학급마다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에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성수 스님(황대선원 조실) 100만원
현성 스님(청소년연합회 총재) 100만원
태응 스님(해동선원 주지) 10만원
자승 스님(중앙종회의장) 30만원
원택 스님(고심정사 주지) 매월 10만원
응천 스님(정토사 주지) 매월5만원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20만원
익명의 불자 100만원

●후원 계좌: 038-25-0008-365 (국민은행, 현대불교)
●후원 문의: (02)2004-8237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 신 수 회 (信修會)
금번 우리 불교와의 특별한 만남인 '2007 한국불교박람회'에 신수회에서도 무공해전통사찰 식품을 전시판매 합니다. 금강경 독송회에서 수행의 정진과 정성으로 빚은 장류 등을 판매한 수익금의 전액은 불우이웃돕기와 새싹불자육성사업에 쓰여집니다. 모든 분들 드시고 건강해지시길 발원합니다.
마음닦는 분들이 정성껏 만든
無색소 · 無방부제 · 無첨가물의 순수자연 발효 식품
※ 토종 항아리에서 숙성된 장류 및 청국장 안내
된장/막장, 국간장/조림간장, 고추장(보리/찹쌀), 참기름, 들기름, 3회죽염, 9회죽염, 청국장(분말, 환, 말린, 찌개용, 무염)
제조원 : 포항 금강정사
http://cafe.daum.net/hbshinsu
서울 02)742-0172 대구 053)425-3063 포항금강정사 054)261-2231 부산 051)514-3566

I Love Buddha / 봄소식

용정운(www.zentoon.com)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독자와 함께 만드는 현대불교

본지 독자위원회 구성…지면 개선 · 기획 제안 등 '열린 편집국' 지향

현대불교신문이 제작의 중심을 독자에게로 이동합니다. 편집국 중심의 제작 관행을 버리고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편집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독자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독자위원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와 가독성 높은 지면구성은 물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분야:** 현대불교 독자위원회 위원
- **모집인원:** 10명
- **응모자격:** 현대불교신문 3년 이상 구독 독자
- **주요임무:** 기사에 대한 평가, 기획물 및 연재물 건의, 잘못된 단어사용이나 오탈자 지적, 지면개선 및 현대불교 발전을 위한 의견 개진 등.
- **처우:** 의견서에 대한 원고료 지급, 본사 간행 도서 제공 등.
- **신청서류:**
  - -자기소개서 1부
  - -'현대불교를 읽고' 의견서(200자 A4용지 1매 내외) 1부
- **모집기간:** 2007년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wwkim000@naver.com
- **발 표:** 2007년 4월 2일 붓다뉴스 홈페이지

불교중앙박물관 Central Buddhist Museum
불교중앙박물관 개관특별전
佛
전시기간 | 2007. 3. 27 (화) ▶ 5. 24 (목)
개관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후 원 | 문화관광부, 한국박물관협회, 국립중앙박물관
문 의 |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TEL 02)2011-1960~8 / FAX 02)732-4474
오시는 길 |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조계사 방면
www.buddhism.or.kr/_muz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 "돌려줘" 국·박 "지금은 안돼"

석가탑 출토유물 반환 놓고 의견대립 팽팽

불교중앙박물관의 전시 · 보존 능력 '쟁점'



최근 보존기관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불국사 석가탑 출토유물(국보 제126호)중 '무구정광대다라니경'(126-6호).

석가탑 출토유물(국보 제126호)의 반환을 둘러싸고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3월 26일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에 앞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던 석가탑 출토유물에 대해, 현재 위탁 관리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이 15일 보존능력 미비를 이유로 반환 불가를 통보했다.

1966년 발굴된 석가탑 출토유물에는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은제사리합, 비단에 쌓인 종이뭉치(묵지서편), 구슬 등 29점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조계종이 유물 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1967년부터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5일 조계종에 보낸 '석가탑 삼층석탑 내 발견유물 이관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화재 · 도난 · 항온항습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보관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의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물관은 "3월 2일 불교중앙박물관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한 바, 진열장 골조공사 중이어서 신축건물 자재의 유해성분이 '무구정광다라니경'과 같은 보존과학적으로 민감한 지류(紙類)유물에 미칠 해독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반환 불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석가탑 출토유물은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불교중앙박물관의 수장고 및 전시 시설은 국내 최고라고 자부한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이관에 대해 논의해오다 돌연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부는 "유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반환 후 실무자 협의를 통해 진행하거나, 전시가 불가능하다면 수장고에 보관하는 등 다각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10월 국립중앙박물관에 석가탑 출토유물의 이관을 요청한데 이어 11월 경 유물에 대한 보험평가액 위임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이관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3월 5일 유선상으로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조계종이 3월 7일 다시 반환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15일 공식적으로 반환 불가 입장을 통보해 왔다. 지난 12일에는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총무원장 지관 스님 면담을 요청했으나, 총무원은 "반환 이외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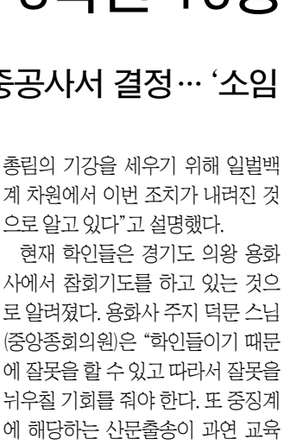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해당 유물의 반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신도시 종교용지 관련 법개정안 종교적 형평성 침해할 수 있다"

김응철 교수 '신도시 계획상…' 세마나서 황우여 의원측 '개정안' 지적

특정종교가 부지 선점 · 독점해 법집행에 '갈등의 소지'



황우여 의원측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신도시 지역 종교용지 관련 법 개정안이 종교적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 사진)는 3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도시계획상 종교부지확보 및 종교기능에 맞는 부지선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종교용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종교인구 비율에 부합하는 종교 간의 형평성, 특정 종교단체간의 종교용지 배정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세미나는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인권포럼에서 주최했다.

김 교수 또 "종교 부지를 특정 종교가 선점하거나 독점하는 상황에서 종교용지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포장기지구 종교시설 용지 공급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원주민 지정을 받은 교회가 10개 포함돼 있어 종교용지의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배제된 종교단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종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종교용지를 배정받고자 하는 종교단체는 접근이 극히 제한돼 있으며, 그 종교를 따르는 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김 교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강화 전등사 기획국장 범우 스님은 "이 개정안대로라면 몇몇 돈 많고 힘 있는 종교 또는 종교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지역별 종교 인구에 따라 용지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우 스님은 또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각 종교 또는 종교단체는 임대하는 형식으로 개정돼야 지역주민의 이익과도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미나는 김종보 교수(중앙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 종교간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동우 기자

종단 중흥 · 유공선사 다례 봉행

태고종, 100명 선정 29일 전승관서

태고종이 그동안 종단중흥에 앞장서 온 100여명의 유공 선사(先師)스님들에게 추모다례를 봉행한다.

3월 29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열리는 이번 법회는 최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에 맞춰 역대 선조사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종단발전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마련된다.

태고종은 1차로 종단에서 방한암, 한용운, 송만암, 국묵담, 박대륜, 권상노, 김법린, 박한영, 이지암, 최범술, 임석진, 안진호, 이능화, 정보성, 안덕암 스님 등 다례봉헌 선사 스님 83명을 선정했다.

태고종은 지방종무원에 공문을 보내 교구에서 입적한 선사 스님의 명단을 접수받고 있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총무원 직제 개편

3팀 5실 11부로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은 종단 중흥 및 개혁 종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3월 13일 3팀(총무, 교무, 재무) 5실(종무조정실, 교무관리실, 교류협력실, 재정지원실, 문화종무특보) 11부 체제로 변경했다. 또한 문화종무특보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 대외적 사업인 전통문화 전승과 전통종단의 이미지 재정립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부서 개편은 기존의 총무원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9개부 체제는 3000개 사찰 및 7000여 승려를 감독 ·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은 3팀을 중심으로 한 담당부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교무팀은 부원장 보경 스님(법륜사 주지)이, 재무팀은 부원장 환우 스님이, 총무부 · 기획부 · 규정부를 총괄하는 총무팀은 종무조정실장 월해 스님(대전교구 종무원장)이 담당한다.

김원우 기자

미륵종 국태민안대법회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3월 28일 오후 2시 총본산 김해 관음정사에서 국태민안 기원 및 제15주년 창종기념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숙원사업인 중앙교육원 건립을 기념해 준비됐다.

행사에서는 국태민안 ·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만등의 등불이 밝혀진다.(055)345-4741

김원우 기자

해안사 강원 3학년 16명 '산문출송'

2월 27일 산중공사서 결정… '소임 안봤다' 이유

해인사 강원 3학년 학인 16명에게 산문출송 결정이 내려졌다. 해인사는 2월 27일 산중공사를 열고 3학년 학인 전원에게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는 정초기도 때 이틀 동안 소임을 보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학인들의 평소 생활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인사 한 관계자는 "학인들이 대중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시정하려 했지만 거부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학인들이 창구를 단일화시키고 일종의 '파업'에 나섰다. 총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인들은 경기도 의왕 용화사에서 참회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화사 주지 덕문 스님(중앙종회의원)은 "학인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줘야 한다. 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산문출송이 과연 교육적인 처사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문출송된 학인들이 다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시 산중공사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기회에 강원문화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해인사 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교구본사 한 강주스님은 "군대식 문화로 고학년이 될수록 권력화 되는 현상이 강원 전반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한 뒤 "일대일 문답식 교수방법을 통해 강사와 학인들의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계율과목을 강화해 학인들이 초발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들이여!! 모이자!! 종로 보신각으로!!

불자여러분! 황우석박사의 과학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NT-1(줄기세포) 재연실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3월24일 황우석박사 연구재연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장소 : 서울 종로 보신각 ●일시 : 2007년 3월24일(토) 오후 1시 30분

황우석박사 연구재연을 위한 범국민 대책협의회



문의처
서 울 070-7449-9479 (알렙) / 02-3471-1172 (민초리) / 02-711-3034 (국민의 소리)
충남, 대전 011-403-5833 / 부 여 010-9950-1929 / 전남, 광주 011-605-7904
부산,경남 051-245-9516~7 / 051-365-1973 / 전북, 전주 010-3074-7272
경북, 대구 011-9585-3047 / 053-754-3041 / 충북, 청주 019-464-8546
※ 각 지역 전세버스 운행

봄, 생명의 봄…

만물이 새 생명을 싹틔우는 봄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불편한 몸과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 그들에게 따사로운 자비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80세 보살님 700만원 쾌척
효준이 구순구개열 수술… "건강으로 보답"



올해 9살이 된 효준이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형종양제거수술을 받은 효준이는 난청과 선천적으로 입천장이 뚫려 있는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다. 청각장애 1급으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효준이에게 시급한 것은 구순구개열 수술. 그러나 택시운전을 하던 아버지는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했고 어머니는 암투병중인 외할머니의 병수발로 수술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1월 말,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진행하는 '환우돕기'에 효준이의 사연이 소개되고 난 후 도움이 손길이 닿았다. 80세의 한 노 보살님이 수술과 1년 동안의 언어재활치료에 필요한 700만원을 선뜻 내놓았기 때문이다.

2월 2일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화를 건 노 보살님은 익명을 요구하며 "효준이를 돕고 싶다"며 7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보살님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며 3월 12일 열린 전달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도 환우 돕기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만 전해왔다. 덕분에 효준이는 2월 23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12일 성금을 전달받은 효준이 어머니 김경미(36)씨는 "선뜻 치료비를 지원해주신 어르신께 감사드린다"며 "직접 뵙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계사 '이웃을 위한 등' 성금 전달
수진 · 민석남매 하지마비 치료 '파란불'



2005년 부처님 오신날. 서울 조계사에 '이웃을 위한 등'이 밝혀졌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조금씩 마음을 내어 단 등 500여 개가 모였고, 그만큼 성금도 쌓여 그 중 1000만원을 강수진(11) 민석(8) 남매의 수술비로 지원하게 됐다. 남매는 유전성 강직성 하지마비를 앓고 있어 수차례의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매의 아버지 역시 같은 병을 앓고 있고 어머니는 소아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수술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물리치료와 병원의 빡빡한 일정 때문에 2년 가까이 수술 일정이 미뤄져왔다. 그러다 마침내 올해 말 민석이가 수술대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계사 사회국장 범성 스님은 3월 13일 서울 가회동에 있는 남매의 집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석이는 수술을 하면 더 잘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아버지 강대생(44)씨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수술을 하고 물리치료도 해야 하지만 밝고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웃을 위한 등'을 밝혀 지금까지 11명의 환우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올해도 조계사에는 이웃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비의 등'이 내걸릴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문화재관람료" 고발
시민단체 아름다운 산하

시민단체인 아름다운산하(대표 이장오)가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시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 및 묵인 혐의로 조계종 총무원장, 희방사 · 천은사 주지를 3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름다운산하는 고발장에서 "천은사의 861번 지방도 통행제한은 도로법 위반, 보호비징수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이며 "희방사 주지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맞대응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종단서 대책 세워라"
부산불교교육대 동문회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강선태)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최현모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장과 이덕자 前 회장 등은 3월 13일 조계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선태 학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과 운영위원들 해임을 비롯해 신도전문교육기관령에 의거한 학교 정상화 내지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조계종 포교원에 촉구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의 갈등은 2005년 9월, 강선태 학장 후임자 선출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남동우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첫 정기법회 봉행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3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회 정기법회 및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이인자 前 불교여성개발원장, 소설가 남지심씨를 비롯해 개발원 임원진과 1 · 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앞으로 1년에 2회 정기법회를 열고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질 예정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4대 생불' 고사난다 스님
3월 13일 美서 원적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았던 고사난다 스님(사진)이 3월 1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레버레이트의 클리 디킨슨 병원에서 원적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1929년 캄보디아 타케오에서 태어난 스님은 43년 출가했다. 53년인도 나란다대 수학 후 일본,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다. 남동우 기자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 · 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http://hompy.buddhapia.com/homepy/hawaii)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6(목)일~8월 14(화)일(19박 20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1차= 3월 15일~ 4월 20일
  2차= 5월 1일~ 5월 30일(참가비 5% 인상)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하와이 무량사
- **후원:**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어학연수:** 본 캠프에서 3년간 영어교육을 담당한 하와이주립대 영어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데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및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고 현지인들과 영어로 대화.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관람, 비숍박물관 관람 및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땁 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탐방, 한국전쟁 참가 희생자들이 묻힌 펀치볼 국립공원 참배
–**자연체험:** 와이키키해변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팔리바람산, 외이메하공원.
–**문화특강:** 영어캠프 현지 총책임자인 하와이주립대 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 김민선 교수가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이해 강의' 실시.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 720-1868/ 010-6318-1976

"철탑 · 순환도로 공사 백지화하라"

서산가야산연대, 난개발방지 · 공원지정 요구

'철탑건설과 순환도로 건설로 죽어가는 가야산을 살리자.'

서산사암연합회와 예산 수덕사, 충남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이 '가야산지키기시민연대추진위원회'(이하 가야산연대)를 발족하고 가야산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야산연대는 3월 14일 충남도청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을 만나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백지화 △가야산 도립공원 지정 △난개발 방지 및 자연생태 보전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 국장은 "가야산 순환도로는 내포문화권의 편리한 관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산사암연합회 총무 정범 스님(보원사 주지)은 "도로가 생겨 수많은 차들이 왕래한다면 지반 흔들림 등으로 서산마애삼존불의 균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가야산연대를 중심으로 도로 건설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충남도는 들여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부터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를 잇는 '가야산 순환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지난 1월 문화재청의 도로현상 변경 불허 통보로 사업 시행이 보류됐다.

이 순환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문화재를 발굴중인 보원사지(국가 사적 316호)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보원사지를 지나는 2.8㎞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만 우선 건설키로 하고 오는 5월부터 다시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해남 성도사에 항일기념관 건립

구한말 의병 봉기 · 격전지…2009년 완공

전남 해남 성도사에 '항일운동 유적지 기념관'이 건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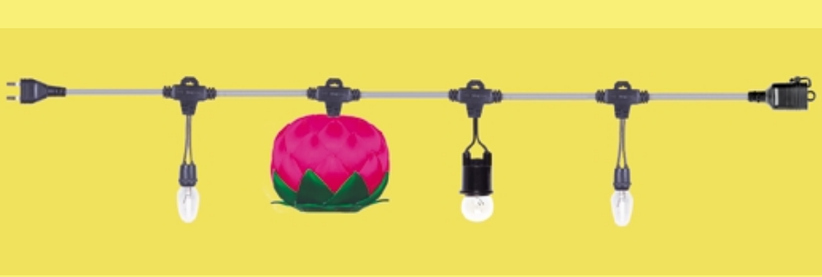
성도사(주지 무애)는 최근 구한말 의병들이 봉기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던 성도사에 항일운동 유적지 기념관을 2009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도사는 2009년까지 국비 예산 450여억원을 들여 성도사 인근 부지 2만1000여 평에 의병 활동 기록, 최초의 농민운동 사료 및 유적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면적 19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기념관에는 항일운동 유적 전시실, 항일 의병 활동 기록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실, 대강당 등이 들어선다.

무애 스님은 "기념관 설립을 통해 성도사가 일제 시대 항일운동의 격전지였다는 사실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며 "역사체험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도사는 현재 국가보훈처 및 광주광역시와 해남군 등에 사업안을 제출했으며 결과는 6월경 최종 확정된다. 김주일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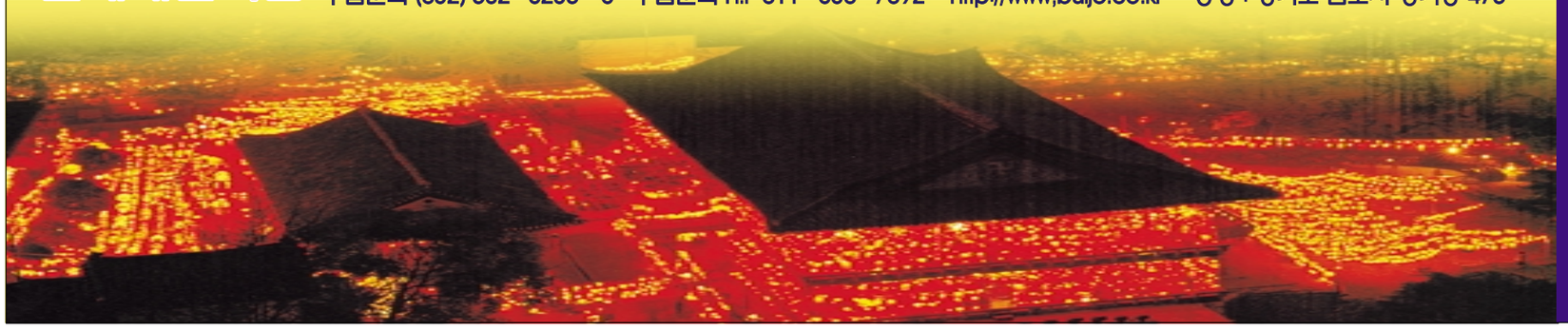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40cm,50cm,
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참 가르침 배워 발심 기회로

출가 · 열반절 맞아 전국서 '수행 열기'
조계사 · 홍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3월 26일 부처님 출가절과 4월 2일 열반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이 이 기간을 '용맹정진주간'으로 삼고 다양한 법회와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의 4대 명절에 속하는 부처님 출가(음력 2월 8일) · 열반(음력 2월 15일)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 다양한 법회와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올해 출가절은 3월 26일, 열반절은 4월 2일이다. 불가에서는 출가-열반절 기간을 '용맹정진주간'이라 부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기간으로 삼는다.

조계종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출가 · 열반 · 봉축맞이 대중강좌'를 마련했다.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불교인재개발원 교육관에서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부처님 일대기를 통해 배우는 불자 신행'을 주제로 진행된다.

부처님 일대기를 '전생기' '탄생기' '성도기' '열반기' 등 8단계로 정리하고, 각 시기 마다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배워본다. 강사로는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와 권기현 교수(위덕대 불교문화학부), 황순일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등이 참여한다. 4월 21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노숙자와 탈북청소년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으로 회향'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불교인재개발원은 "출가절부터 봉축절 기간 동안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적인 수행법을 제시함으로써 불자 스스로 정진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 행사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참비 15만원. (02)735-2428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3월 26일부터 8일간 부처님의 일대기를 팔상성도를 통해 배우는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팔상성도는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여덟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도솔의래상 비람상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등의 그림에 나타난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짚어본다. 26일에는 진월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27일 마성 스님(팔리문헌소장), 28일 지안 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 29일 도오 스님(환성사 주지) 30일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31일 경성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4월 1일 경성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4월 2일 일진 스님(운문승가대학감)이 각각 강의를 맡는다.(053)766-3747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신도회 및 일반신도들을 대상으로 일일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일출가 동참자들은 발우공양과 다도, 요가, 좌선, 서원쓰기 등을 체험하게 된다. 4월 1일에는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공부' 첫 시간이 열린다. 사시예불 후 108배 참회, 서원쓰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1~3시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KBS 다큐멘터리 '선 이야기-문명을 새기다'를 방영하고, 종무소 앞마당에서는 사불체험도 진행된다.(02)732-2183

서울 화계사는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 경내 오백성전에서 출 · 재가 공동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다. 회향일인 4월 2일에는 익산 왕궁리사지에서 쵤야법회를 봉행한다.(02)903-3361

서울 열린선원(원장 법현, 태고종 교류협력실장)은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를 특별참회정진기간으로 삼고, 매일 오전 6시 전 대중이 108예참문을 합송하며 1080대참회를 한다. 회향법회는 4월 1일 야외법회로 열릴 예정이다.(02)386-4755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도 '제5회 1만배 정진기도'를 봉행한다. 3월 26일 오후 7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4월 2일까지 큰법당에서 매일 1250배씩을 올린다. 동참비 2만원.(051)508-0345

광명 금강정사(주지 원명)도 출가-열반절 기간을 '발심정진주간'으로 삼고 매일 사시예불 때 참선 독경 사경 등의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02)898-8200

이 밖에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8일간 1080배씩을 하는 정진법회를,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에 각각 오전 11시 기념 법요식을 개최한다. 월정사 (033)332-6661, 석왕사 (032)663-7771.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1000일 기도'를 이어 나가는 한편, 4월 1일에는 철야정진으로 1만배 기도를 봉행할 계획이다.(02)511-6070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수월선사 추모 사찰 몽골불교대학 건립 등

봉은사 중장기 발전계획안 발표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연변 수월선사 추모사찰과 몽골 불교대학 건립 등 해외포교에 박차를 가한다.

봉은사는 3월 14일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봉은사 중창불사 원만성취 천일기도 백일자 법회'를 열고 ▷전통사찰에 걸맞는 가람정비 ▷신도조직의 활동 강화 ▷해외포교의 전진도량 건설 ▷이웃과 함께하는 대사회사업 ▷ 도심사찰에 맞는 포교프로그램 실시 등 5대 영역 20여 가지 사업을 포괄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봉은사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도량 내부를 재정비해 소나무숲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참선수행센터를 건립하는 등 '선종수사찰'로서의 전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신도조직 활성화로 4년 내에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대사회봉사단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복지지원법인을 설립해 호스피스 교육과 봉사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일요법회를 가족법회화하고 직장인을 위한 수요법회, CEO를 위한 새벽 명상 , 외국인 템플라이프 등 도심 사찰에 맞는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포교에도 눈을 돌려 연변 수월선사 추모사찰과 몽골 신도들을 위한 불교대학을 건립해 해외 포교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명진 스님은 "봉은사 중창불사는 외양적인 도량정비가 아닌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자승 스님과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김건호 봉은사 신도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명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천일기도를 시작해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6시 세 차례에 걸쳐 하루 천배를 올리는 기도정진을 해오고 있다. 여수령 기자

화엄사, 핀란드에 한국불교 소개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가 핀란드에 한국불교를 소개한다.

구례 화엄사 포교국장 대요 스님은 핀란드 헬싱키 국립문화박물관에서 4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9개월간 열리는 '한국의 집-생활과 문화' 전시회에 참가해 한국불교를 알릴 예정이다.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전시공간이 별도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모과나무 기둥으로 지어진 화엄사 구층암 승방, 대웅전의 모습 등 구례 화엄사의 다양한 모습들이 전시된다. 또 대표 스님의 설명으로 '한국불교와 선이야기' '한국인의 차문화' '발우공양' 등의 강의도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유가심인당 글쓰기 · 중국어 강좌

수원 북수동 유가심인당(주교 혜정)은 3월 25일부터 매주 일요일 마다 화홍어린이도서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글쓰기와 중국어강좌를 개설한다.

1개월 글쓰기 과정은 삶을 가꾸는 글쓰기에 대한 이해와 꾸며쓰는 글, 진정성이 담긴 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인사나누기 등을 일러준다.

2개월 과정에서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글감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겪은 일 쓰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감찾기 등을 배우게 된다.

중국어 봄강좌는 △중국어학개론 △중국어 병음 읽는 방법 △성조연습 △성조변화 및 성조위치와 발음연습 △간단한 중국어 배우기 10강좌가 이어지며 차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강좌에서는 중국인과 함께 하는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비구니회 법화산림법회 33법사 선정

회향식은 10월 21일 광우 스님 법문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3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30분부터 법룡사 대법당에서 여는 법화산림법회에 나올 비구니 33법사를 선정했다.

비구니 33법사는 3월 11일 명성 스님에 이어 전국비구니회 교무부장 일법(3월18일),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일초(3월25일), 운문사승가대학 학감 일진(4월1일), 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광옥(4월8일), 봉녕사 승가대학 학감 도혜(4월15일), 유마사 주지 일장(4월22일), 청암승가대학 학장 지형(4월29일)이다.

또 흥안사 세등(5월6일), 전국비구니회 섭외부장 성정(5월13일), 동국대 교수 해주(5월20일), 남화사 대우(5월27일), 관음사 임대(6월3일), 망월사 성법(6월10일), 진관사 주지 계호(6월17일), 전국비구니회 규정부장 승혜(6월24일),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7월1일), 동국대 교수 계환(7월8일), 중앙승가대 교수 능인(7월15일), 동국대 교수 묘주(7월22일), 대복사 혜견(7월29일), 지장암 선원주지 정안(8월5일),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8월12일) 스님이 법문한다.

10월 21일 법화산림법회 회향식에는 前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한편 법화산림법회에서는 대승불교의 최상승법문인 <법화경>의 요체를 비롯해 총 28품이 강설되고 있다. (02)3411-8103

김원우 기자

봉화 청량산, 명승지로 지정



청량사가 자리 잡고 있는 봉화 청량산(사진)이 3월 13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봉화 청량산은 예로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해 '소금강'이라고 불렸을 만큼 명산인데다 지질학적 측면에서도 학술 가치가 뛰어나 명승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량산에는 원효 · 의상 스님에 얽힌 설화도 전해오며, 연적봉 금탑봉 향로봉 등 12개 암봉과 금강대 원효대 반야대 등 12대, 의상굴 반야굴 등 8굴 등 불교와 관련한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봉화군과 함께 청량산 복원 정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공고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제 27세 주지 취임 진산법회 개최

1600년 한국불교의 정통법맥을 이어가는 조계산 선암사에서는

불기 2551년(서기 2007년) 3월 30일(음 2월 12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제27세 주지 **설운당 백윤식 스님의 취임 진산법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진산식은 과거 **선암사 운영위원회법**이 폐지되고 이번에 다시 부활된 선암사 사법, 사규에 의하여

12년만에 재적승 전산총회를 통해 직접 투표로 선출된 만큼 금번 설운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전 종도가 서로간의

지난 갈등을 해소하고 종단화합을 위하여 선암사가 총림의 본래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3월

선암사 제27세 주지 진산식 추진 위원장

절·마을 '참마음'으로 통했어요


미황사 아래마을 산정리 당산나무.

불교문화콜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⑥ 달마산 미황사

시대에 맞는 포교를 하는 산중 사찰 미황사는 문턱이 낮다. 달마산을 내려온 바람이 풍경 소리 법문을 밤새도록 들려주었다.

산사 초입에 피어있는 동백꽃만큼이나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미황사의 창건 설화를 들어보자. 경덕왕 749년 돌로 만든 배가 달마산 아래 포구에 닿았고, 배안에서 범패 소리가 들려 어부가 다가가자 배가 멀어져 갔다. 이야기를 들은 의조 화상이 정갈하게 목욕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포구로 나갔을 때 배가 포구에 다다랐는데 금인이 노를 젓고 있었다. 배안에는 <화엄경> 80권, <법화경> 7권, 비로자나불, 문수보살, 40성중, 16나한, 탱화, 금가락지 검은 돌이 실려 있었다. 사람들이 경전 모실 곳을 의논할 때 검은 돌이 갈라지며 검은 소 한 마리가 나와 커다란 소로 변했다.

그날 밤 의조 화상 꿈에 나타난 금인이 소에 경전과 불상을 싣고 가다가 소가 누웠다 일어나지 않거든 그 자리에 모시라고 일러 주었다. 소를 앞세우고 가는데 소가 한 번 땅바닥에 눕더니 한참 일어나지 않다가 다시 일어나 골짜기에 이르러 누워버렸다. 처음 누웠던 자리에 통교사를, 마지막 머문 자리에 미황사를 창건했다.

조선시대 한때 융성을 거듭하던 미황사는 풍물패를 이끌고 청산도로 가던 배가 조난당하는 바람에 주지스님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89년 주인 없이 비어 있던 미황사에 지운, 현공, 금강스님이 머물러 마음을 다하여 중창 불사를 시작했다. 불과 15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아름다운 미황사로 가꾸는데 사하촌 사람들의 애정도 한몫을 했다. 절집의 일이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동부청년회가 발을 벗고 나서서 돕는다. 이제 미황사는 사하촌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꿈을 꾸고 있다. 한문 학당, 탁본, 생태 체험, 별자리 탐험, 오카리나연주 등 교육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산골 마을 사람들을 잠에서 깨운다. 마을로 내려온 스님은 더불어 살아가는 서정, 산정, 미아리, 어불리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정월에는 마을 당재를 모셔주기도 한다.

마을 당재는 음력 14일 동네 아낙들이 다라(함지박)에 한상씩 음식을 차려와 동네 앞에 진설을 하고 군고패가 굿을 치며 당재를 모신다. 아랫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스님은 절 주인이 지역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미황사는 산사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찰이다. 전문 공연 단체에 행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지 금강 스님이 지휘 본부장이 된다. 몇 안 되는 종무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많은 관객들을 수용하기 어려우리라는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무대 설치부터 식사 대접까지 모두 사하촌 사람들의 봉사로 행사를 마치게 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템플스테이 손님이 많은 미황사에는 공양주 보살이 둘이다. 필요할 때마다 아랫마을 아낙들이 돕는 손길이 된다. 그것은 먼저 스님이 마음 문을 열어 두었기 때문 아닐까. 스님은 한 사람의 손님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차담을 나눈다.

정월이면 마을의 안녕 위해 스님이 직접 당재 모셔 주기도 산사음악회 등 행사 있을때면 사하촌 사람들 발 벗고 나서


산정리 풍경.


미황사와 달마산.

미황사 중창 불사를 위해 흔허 스님이 궁구패를 조직해 스님들과 같이 시주를 구하러 다녔다. 영화 서편제에서 나오는 청산도로 마지막 시주를 구하러 가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구렁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다음날 바다로 떠나고 풍랑을 만나 모두 죽고 설장구를 치던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러나 먼저 죽은 사람들이 설장구가 없어 굿이 안 된다고 부르는 환청에 시달리다 죽고 말았다. 그 일로 미황사 중창 불사가 한 번 꺾이고 백년 후 다시 뜻을 이루어 미황사가 되었다. 횡간도의 사자바위에는 음력 2월 보름이면 굿소리가 나고 혼불들이 나타나 굿을 친다는 이야기가 어른신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그 때 미황사 군고패들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미황사의 중창 불사 꿈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백년이 지나 미황사 중창 불사가 시작되었고 ,군고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음 생에 만난 스님과 상쇠가 사찰을 살리려 한다는 말들을 한다. 미황사가 추구하는 것이나 풍물굿이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


미황사 동백꽃

미황사=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군고패의 상쇠 박필수 선생



음악은 서로 다름 인식하는 것 신심과 한 판 놀아야 '풍물패'

군고패의 상쇠 박필수 선생은 중학교 때 도시로 나갔다가 고향집이 너무 그리워 다시 돌아와 악기를 만지게 되었다. 동네에서 굿을 치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란 탓에 굿을 치는 것이 고향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을에 돌아왔을 때 어르신들이 당산 나무 아래에서 징과 꽹과리를 치며 노는 것을 보고 나의 여행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곳을 많이 돌아다녔지만 그것은 보존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생생하게 나오는 그림이 없는가 하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당산 나무 아래의 어르신들과 굿소리가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는 것이 나는 여기 머물러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지요. 나는 음악 하는 사람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도의 예술 정치라고 할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마음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춤이 나오고 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소리로 나오는 것이지요. 음악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그것을 함께 표현해 보고 자연과 어울림을 갖는 것 입니다."

바람이 다르거나 물길이 다르거나 토양의 문제가 인간의 감성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악기를 두드리는 것은 신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나와 내 속에 있는 신심과 한 판 놀이를 벌여야 되는 것이 풍물패라고 말했다.

금강 스님과 박필수 선생은 미황사 산사 음악회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무모하게 처음 시도하게 되었다. 음악회라기보다 축제판이라고 해야 올을 듯하다. 유명한 사람들 불러오지 말고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가을에 1년 동안 수고하고 땀흘린 것들을 미황사에 와서 보따리 풀어내며 가득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산사음악회에 쏟는 그의 열정은 남다르지만 대가가 필요 없는 순수한 봉사다.



일주문



학생회 어린이 지도교사 임명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3월 11일 구인사에서 제5회 지도교사 신앙체험 수련법회를 열고 전국학생회지도교사연합회장에 이용진씨를 임명했다.



전북도청공무원 대상 법문

前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 스님은 3월 28일 오후 6시 30분 전라북도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전북도청불자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문한다.



보살계 수계대법회 법문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4월 2일 서울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호국금강계단 보살계 수계대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



육군사관학교 수계법회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3월 14일 서울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법당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간화정로 강의

전국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월암 스님은 3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간화정로' 강의를 진행한다.(02)511-6070



기관사불자회 법문

태고종 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은 3월 26일 오후 3시 서울역 KTX사무실에서 열리는 기관사 불자회 특별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010)2272-8685



구산선문 성지순례

전등사 주지 장윤 스님은 3월 24일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선지식의 자취를 찾아서'를 주제로 구산선문 성지순례를 진행한다.(032)937-0125



효림원 개원 3주년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이사장 무구 스님은 3월 20일 효림노인복지센터에서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교교육연합회 품수식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김재일 회장은 3월 24~25일 인제 만해마을에서 제5회 연합포교사고시 합격자 품수식을 개최한다.(02)734-9595



2차 어린이생태문화탐방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대표는 3월 24일 북한산성 일대 계곡과 서암사지 등을 둘러보는 제2차 어린이생태문화탐을 진행한다.(02)745-5813

"불교상담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

불교상담대학 개설한 정덕 스님



"그동안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자비의전화 봉사자 교육과 불교상담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불교상담대학이 건립됨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불교상담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불자들이 위대한 상담가였던 부처님을 닮아 불교적 소양과 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은 인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불교상담대학이 올해 첫 개설돼 3월 12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교육장에서 입학식을 개최했다. 불교상담대학은 전문적인 상담가 양성을 위해 올해 첫 불교상담심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상담가 교육을 위한 개설한 것이다.

불교상담대학장 정덕 스님은 "불교계의 상담 활동이나 상담가 육성 등은 이웃 종교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며 "현대인들의 고민과 심리적인 문제를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불교상담심리사들이 많이 양성돼 각 분야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상담대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스님 15명과 재가신도 35명 등 총 50여 명이 입학해 앞으로 2년 과정의 교육을 받게 된다.

여수령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개관…관장에 정관 스님



"지역 어르신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종로구청이 설립하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조계사가 운영 지원하는 서울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3월 21일 개관식을 봉행한다. 2월 1일 서울 이화동에 문을 연 복지관은 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893평으로 주간보호시설과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탁구 · 바둑 등 취미활동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옥상을 공원으로 꾸며 문화공연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2월 6일 관장으로 부임한 정관 스님은 "복지관이 위치한 이화동 지역에 목욕탕 시설이 부족해 복지관 내에 찜질방을 설치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며 "어르신들이 언제나 편하게 들러 휴식을 취하고 법률상담, 구직상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지난 3월 8일, 인근 이화여대 부속 동대문병원과 의료복지협약을 체결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검진과 건강강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02)742-9500

여수령 기자

아프리카 포교원력 101일 국토대장정 회향

3월 10일 임진각 평화누리서



3월 10일 열린 해단식에서 아프리카 민속공연을 지켜보고 있는 성재경 시인(왼쪽 세번째)과 동봉 스님(왼쪽 네번째).

"우리 산하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도보 순례의 취지를 알리니까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셨어요. 어느 식당에서는 밥값도 받지 않고 오히려 성금까지 내주시더군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불교문화아카데미를 건립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101일 국토대장정 고행정진'에 나선 동봉 스님이 3월 10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30일 경기도 곤지암 우리절을 출발해 도보 순례를 시작한 동봉 스님은 칼바람을 맞으며 매일 20~30㎞씩 도보로 전국을 한바퀴 순례했다. 고행 중에는 틈틈이 봉사활동도 펼쳤다. 이 순례길 내내 성재경 시인이 함께 했다. 동봉 스님은 순례를 끝낸 뒤 오는 9월부터 1년동안 성재경 시인과 유럽 전역을 돌며 한국불교를 알릴 예정이다. 또한 내년 9월에도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미대륙을 횡단하는 도보순례를 꿈꾸고 있다. 이 역시 '아프리카에 희망을'이란 슬로건을 걸고서다.

한편 만불회 회주 학성 스님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해단식은 묘정 스님의 회심곡 연주, 국악연수원생들의 사물놀이 축하공연, 임현택 시인의 축시낭송, 아프리카문화원 공연단의 민속무용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철안 스님은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에 한국 불교를 알리겠다는 동봉 스님의 의지가 이번 순례를 통해 우리 산하 곳곳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대학 졸업식



진각대학(학장 경정)은 3월 13일 서울 하월곡동 진각종 통리원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도흔 총인을 비롯해 통리원장 회정 정사, 진각대학장 경정 정사 등이 참석한 졸업식에서는 정일(밀각심인당 교화스승) 정사 등 8명이 졸업했다. 최우수상인 진각종 총인상은 정일 정사가 수상했다.

자비나눔 캠페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은 3월 13일 개운사에서 승가원 후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종범 스님 법회에 이어 승가원 법인사무국장 동옥 스님과 직원들은 신도들에게 자비나눔 저금통과 홍보물을 배포했다. 종범 스님은 "더 많은 불자들이 자비나눔 운동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현무료노인전문요양원 준공



조계종 금산사복지원(대표이사 원행) 군산지부는 3월 15일 보현무료노인전문요양원 준공식을 봉행했다. 준공식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과 금산사복지원 군산지부장 성우 스님(은적사 주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상 3층, 연면적 711평 규모로 건립에 총 20억원이 투입됐다.(063)463-3600

외국인 학생 템플스테이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는 3월 16~17일 심검당에서 연세대 원주캠퍼스 글로벌빌리지 프로그램 교환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교환학생들은 다도, 참선, 예불 등을 체험했다.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알리기 및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찰음식학과 실습장 현판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은 3월 14일 서울 인사동 사찰음식전문점 산촌(대표 정산) 2층 교육장에서 사찰음식문화학과 실습장 현판식을 봉행했다.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은 "사찰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찰음식문화학과는 3월 21일 개강한다.

"장엄불사" 시멘트의 한식조각물 성형으로 죽림 불교 건축이 제작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정신의 혼을 담은 전통 죽림 불교 건축

새로운 한국 전통건축 창조에 노력하는 죽림건축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고가 되겠습니다.


▲서가래


▲부연


▲귀포


▲외삼포 조립과정


▲요사채


▲3×5포


▲외삼포법당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현장시공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 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화재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청 불사
◆기와 불사
◆닫집, 탁자 불사
◆콘크리트 PC 법당
◆목조 건축 불사
◆요사채, 납골당
◆문중 제실 공사
◆문화재 보수 업체

설계에서 시공까지

죽림 불교 건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204-5
TEL 031)285-5818 / H · P 010-3160-3689



'회화나무합창단' 단원들이 악보를 보며 실버하모니를 내고 있다.



'유아법회' 어린이들이 합장 반배를 하며 '어린이 오계'를 지킬것을 다짐하고 있다.

조계사 '유아법회' '회화나무합창단' 현장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절에서 노래하고 춤춰요



'눈높이 프로그램' 아이들에 흥미
합창단은 또다른 신행생활의 모범
'포교 블루오션' 개척의 성공 사례



한국불교의 중심 조계사(주지 원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법회'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회화나무합창단'이 그것.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사찰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부처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포교의 블루오션'을 개척한 조계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신행문화의 변화가 꿈틀거리는 현장을 들여다봤다.

△유아법회

한 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있다. 다른 한 아이는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장난감 더미 속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드는 아이. 최신 유행가를 목청껏 부르는 아이. 여느 유치원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미소를 지으며 이러한 모습을 내려다보는 부처님이 여기가 법당임을 일깨운다.

조계사 유아법회가 호응을 얻고 있다. 2006년 8월 6명으로 시작한 유아법회가 60여명으로 늘어났다. 법회에는 보통 30명 정도 참가하지만 그래도 놀랄만한 증가세다. 1회 졸업생도 15명 배출했다.

조계사 유아법회는 '불교 생태 활동 법회'를 큰 주제로 진행된다. 어려서부터 자연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불교생태 및 불교문화를 저절로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1월에 친구들과 눈썰매장도 가고, 6월에 가족과 함께 사찰순례도 한다. 특히 11월에는 여행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운다. '눈높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다.

3월 11일 조계사 소설법전. 유아법회가 시작됐다. 황연경 유치부 주임교사(나무쌤)가 "이제 정리하고 자리에 앉자"고 외치자 30여명의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주섬주섬 치운다.

열매반과 별꽃반, 꽃잎반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에 귀의한다. 열매반과 별꽃반은 7살, 꽃잎반은 5~6세 아이들로 구성됐다.

이어 한글반야심경을 봉독하는 아이들.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이 선창하면 따라한다.

다시 자리에 앉은 아이들은 가부좌를 틀기 시작한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아예 다리를 쭉 편 아이도, 바로 엎드려버리는 아이도 있다. 선생님들의 움직임이 바빠진다.

명상음악이 흘러나오자 아이들 표정이 달라진다. 눈을 연신 감았다 떴다 하는 아이도 있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하다. 지난주에는 이 시간에 아픈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은 스물을 셀 때까지 생각을 정리했다.

새로 오신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 소개에 이어 '어린이 오계'를 낭독한다.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그것과 같다. 음행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대신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스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고 다짐한다.

이제 즐거운 율동 시간. 선생님과 함께 '숫자송'을 따라 부르며 춤추기 시작한다. 엉덩이를 씰룩거리며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댄다. 박수치며 팔짝팔짝 뛰기도 한다. 그야말로 천진불 세상이다. 법회의 마지막은 서로 마주보며 합장 반배로 서원하는 것. '성불합시다.'

아이들은 이날 대웅전과 일주문, 회화나무, 백송 등을 둘러보며 조계사가 '우리 절'임을 어렴풋이 느끼기도 했다.

보현이 엄마 윤은실씨는 "아이가 유아법회에 참석한 뒤부터는 사람들을 만나면 합장을 한다"고 귀띔했다. 또 "일반 유치원과 달리 민속놀이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때문인지 법회일이 되면 아이가 먼저 가자고 조른다"고 덧붙였다.

국제포교사인 그녀는 "유아법회가 자연스럽게 포교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한 뒤 "조계사에도 유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회화나무합창단

"만다라화 향내음이 시방세계 두루 하네 그 향기 맡는 이는 마음마다 연꽃 되어 사바의 속진 번뇌 모두 다 사라지고 이루는 곳곳마다 연화장 세계로세."

3월 15일 조계사 극락전. 80여명의 어르신들이 김진영 선생님(조계사 합창단 부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찬불가 '연꽃 피어오르리'를 부르고 있다.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박자를 맞춰보지만, 때로는 박자를 놓치기도 때로는 틀린 음을 내기도 한다. 그래도 표정만은 일류 합창단 못지않다.

지난 2월 창립된 조계사 회화나무합창단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창립 2개월도 안 돼 회원수가 190여명에 이르렀다. 기도나 산사순례 외 특별한 신행프로그램이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음성공양이라는 새로운 선물이 나타난 것이다.

황옥선 보살님도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 도반들도 만날 수 있고 노래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 탓인지 배운 것도 자주 잊어버리고 힘에도 부치지만 즐겁기만 하다. 찬불가뿐만 아니라 '어머나' '가는 세월' 등 유행가 배우는 것도 재미다.

회화나무합창단은 3월 넷째주 일요법회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한다. 실버하모니로 봉축법회 무대를 장식할 날이 어서 오기를.

글=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1> 부처님을 파는 도둑들

옛날 어떤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냥을 하니 짐승들도 그를 두려워하고 경계하여 눈앞에서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사냥을 나가도 짐승을 잡지 못하게 되자 사냥꾼은 꾀를 내었다. 사냥꾼은 스님처럼 옷을 입고 소매가 넓고 긴 장삼 속에 활을 감추고 사냥터로 나갔다. 노루와 사슴들은 자비로운 스님인줄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사냥꾼 옆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사냥꾼은 장삼 속에 감추어 둔 화살을 꺼내 짐승들을 쏘아 죽였다. 이렇게 선하고 어진 스님으로 둔갑하여 짐승을 잡았던 사냥꾼처럼 부처님을 팔아 잇속을 챙기는 도둑들이 있다. <선가귀감> 61장에서 말한다.

佛云 云何賊人 假我衣服 裨販如來 造種種業.

부처님께서 "어떻게 교활한 도둑놈들이 거짓으로 내 옷을 입고 여래(如來)를 팔아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느냐?"라고 말씀하셨다.

말세에는 간악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여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해 부처님의 제자들이 입는 가사와 장삼을 입고 스님인 척하는 경우가 많다. 스님이라면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욕심이 적고 도(道)를 닦는 분이라고 남들이 믿어주는 까닭에, 그것을 미끼로 부처님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재물을 모으려는 속셈이다. 근래에는 스님의 탈을 쓰고 신심이 돈독한 신도님들을 속이고 협잡을 일삼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다. 그런 사기협잡꾼은 그만 두고라도 말세에는 여러 형태의 '가짜중'들이 많이 나타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末法比丘 有多般名字 或鳥鼠僧 或啞羊僧 或禿居士 或地獄滓 或袈裟賊. 噫其所以以此.

말세에는 행실이 나쁜 비구 스님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름이 붙는다. '박쥐중' '벙어리 스님' '독거사' '지옥찌꺼기' '가사 입은 도둑'과 같은 이름들이다. 아! 이렇게 안 좋은 이름으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까닭은 여래를 팔아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불법 팔아 생계 유지하면 '가사 입은 도둑'
세상 잇속 버리고 '소욕지족'의 삶 살아야

'말세(末世)'는 부처님도 안 계시고 부처님의 법도 세간에서 사라지므로 참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운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양질호피(羊質虎皮)'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부처님의 제자인 척 하여, 공부는 않고 세상의 잇속만 좇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절에 가면 스님인척 하고 세속에 나가면 속인인척 하여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면서, 세상의 잇속을 찾아 때로는 스님 노릇도 하고 때로는 속인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일러 '박쥐중[조서승(鳥鼠僧)]'이라고 한다. <불장경(佛藏經)>에서 이르기를 "박쥐는 새를 잡으려고 할 적에는 땅속에 들어가 쥐가 되고, 쥐를 잡으려고 할 적에는 공중에 날아가 새가 된다. 그러나 실로 새 축에도 낄 수 없으니 그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늘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 사리불이여! 계행을 깨뜨린 비구도 그와 같아서 올바른 스님 축에도 못 들고 세상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중도 속인도 아닌 것을 '박쥐중'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출가하여 도를 닦는 척하고 법을 아는 척하다가도 설법을 하라면 혀가 굳어 말문이 막히는 스님이 있다. 그리하여 참선을 하는 사람은 강사가 아니라서 경전을 모른다고 하고, 경을 보는 사람은 마음을 닦아보지 않아서 참선을 모른다고 한다. 근본을 알고 있어도 겸손한 뜻으로 그런 말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수십 년 공부한 수행자들이 정말 부처님의 법을 몰라 말문이 막힌다면 기가 막힌 일이다. <대지론>에서 이르기를 "파계승은 아닌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라 지혜가 없으므로 좋고 나쁜 것을 구별 못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모른다. 옆에서 사람이 죽었더라도 마치 벙어리 염소처럼 소리 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으니 이를 일러 '벙어리 염소중[아양승(啞羊僧)]'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은 것은 스님 모습인데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 세상에 나가 장가를 들어 살까?' 하는 생각뿐이니 이를 일러 '머리 깎은 거사'라고 한다. 올바르지 못한 여러 스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서산 스님은 말한다.

裨販如來者 撥因果排罪福 沸騰身口迭起愛憎 可謂愍也. 避僧避俗曰 鳥鼠 舌不說法曰 啞羊 僧形俗心曰 禿居士 罪重不遷曰 地獄滓 賣佛營生曰 被袈裟賊 以被架袈賊 證此多名.

여래를 판다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인 척 하면서도, '인과를 믿지 않아 뒷날 받게 되는 과보인 죄나 복이라는 것은 없다' 하여, 몸뚱이와 말로 물 끓듯 업을 지어 쉴 새 없이 애증(愛憎)을 일으키는 것이니 참으로 가엾고 안타까운 일이다. 제 잇속을 찾아 주변상황에 따라서 낮에는 스님의 복장으로 있다가 밤에는 속인의 복장으로 바꿔 입고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을 '박쥐중'이라고 한다.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조금도 없으므로, 살아 있는 세치 혀가 있는데도 불법(佛法)을 간단명료하게 설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벙어리 스님'이라고 한다. 겉으로는 스님의 형상으로 생활하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처럼 탐욕스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머리 깎은 거사'라고 하여 '독거사(禿居士)'라고 한다. 스님의 탈을 쓰고 있지만 지은 죄가 하도 나쁘고 죄질이 무거워서 지옥에서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을 '지옥 찌꺼기'라고 한다. 스님의 가사와 장삼을 입고 부처님의 제자인양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사 입은 도둑'이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가사를 입고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같은 많은 이름을 드러내게 된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 조심해야 할 일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의 법대로 사는 수순행(隨順行)을 함으로써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기뻐야만 한다. 세상의 잇속을 버림으로써 번잡한 일을 없애고 시끄러운 곳을 떠나 늘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공부해야 한다. 언제나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여 욕심이 없는 순결한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남이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두타행(頭陀行)'을 실천해야 한다. 작은 죄라도 두려움을 내고 부끄러워하며 그 허물을 뉘우칠 수 있는 깨끗한 삶으로서 '청정행(淸淨行)'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나가는 공부만이 깨달음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총림(叢林)

3월 초 영축총림 방장 후보에 원명 스님이 추대됐다. 영축총림은 통도사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다. 조계종 산하 사찰 가운데 총림(叢林)으로 지정된 사찰은 모두 다섯 곳. 영축총림 통도사를 비롯해, 조계총림 송광사, 해인총림 해인사, 덕숭총림 수덕사, 고불총림 백양사의 총 다섯 총림이 있다. 이 가운데 백양사가 1996년 총림으로 공식 승격돼 총림으로의 역사가 가장 짧다.

총림(叢林)은 많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화합하여 함께 배우기 위해 모인 것을 나무가 우거진 수풀에 비유한 것에서 시작된 말이다.

<지도론(智度論)>에 의하면 "승가(僧伽)는 중(衆, 무리의 뜻)의 뜻이니 많은 비구가 한 곳에 화합하여 머무는 것을 승가라고 한다. 마치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룬 것을 림(林)이라 함과 같으니 승취(僧聚)가 모여 사는 곳이므로 총림이라 한다"고 설한다.

지금은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禪院)과 경전교육기관인 강원(講院),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律院) 등을 모두 갖춘 사찰을 지칭하는 말이 됐다.

불교교육의 총화, 종합대학이라 말할 수 있는 총림을 이끄는 수장이 바로 방장(方丈)이다.

해인총림은 조계종 종정인 법전 스님이, 조계총림은 보성 스님이, 덕숭총림은 원담 스님이, 고불총림은 지종 스님이 방장을 맡고 있다. 태고총림은 태고종 종정인 혜초 스님이 방장을 맡아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



심리적 문제의 원인

불교에서나 상담심리학의 인간중심적 인간관에서 보자면 인간에게 심리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에서는 인간이란 누구나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라 한다. 인간중심적 접근에서는 인간이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그 경향성에 실현하려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심리적 문제가 있고, 괴로움(苦)이 있어 심리치료나 상담을 하며, 불교적 가르침을 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려 한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문제, 고통의 원인을 보는 시각은 상담심리학과 불교가 각각 다르며, 상담심리학 내에서도 각 조류별로 시각차가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란 태어나서 생후 5년까지의 유아기의 여러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이 시기에 성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부위의 이동에 따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등을 거치면서 어떠한 성장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불안, 신경증 등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진정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잘 적응하는 개인이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본다.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학습한 탓에 문제가 생긴다.

인지심리학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왜곡된 사고 때문에 심리적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는 여건을 만든다. 정서적 혼란을 가져오는 신념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신념에 따라 스스로를 정서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적 접근에서는 자아 구조와 유기체의 경험 간의 불일치 때문에 부적응이 일어난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자아와 유기체의 경험 간에 일치성이 있으면 잘 적응하는 상태가 되며,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경험에 개방적으로 되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심리적 문제 원인은 자신이 만든 정서적 혼란
"윤회하는 동안 누구나 괴로울 수 밖에 없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인 측면에 국한해서 다루지 않는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문제요, 인생이란 곧 괴로움[苦]이라고 말한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윤회 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회하는 이 세상을 돌고 도는 동안에는 누구나 괴로울 수밖에 없다.

삼법인(三法印)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무상한 존재며, 실체적인 '나'가 없다. 무상하므로 괴롭고, 실체적인 '나'가 없는데도 '나'를 찾으려 하고 '나'란 허상을 만들어 집착하니 괴롭다. 그래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이요 제법무아(諸法無我)이니, 모든 것이 괴로움인 것이다[一切皆苦].



그림 : 문병성

제9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9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공모분야 및 주제**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 주제	자유 주제	
진각종 교학	2 편	① 법맥의 사자상승 ② 재가와 출가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제한 없음	지정 주제 내용 • 의 미 • 역사적 의미, 전개 • 지역적 전개 양상 • 현재적 의미와 현상 • 미래지향적 모습
불 교 일 반	3 편			
밀 교 일 반	3 편			

◆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 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 (소정 양식: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공모일정** : 접 수 마 감 – 2007년 4월 27일(금요일)
당 선 작 발 표 – 2007년 5월 29일(화요일) 예정
당선논문발표회 – 2007년 11월 15일(목요일) 예정
◆ **당선작 상금**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500만원), 선정 7편(편당20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www. jingak. or. kr / e-mail : bubsung@jingak. or. kr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진리의 종을 널리 널리 울려 줄

법보시용 책자 원고를 모집합니다

중생과 부처가, 속세와 깨달음이 고구정녕 둘이 아니건만 여전히 "나는 여기에 있고 법은 저기에 있는" 나날이 거듭되기에, 우리에게는 다시금, 또 다시금 "존재의 중심자리"를 상기시키는 "사랑과 자비의 응원군"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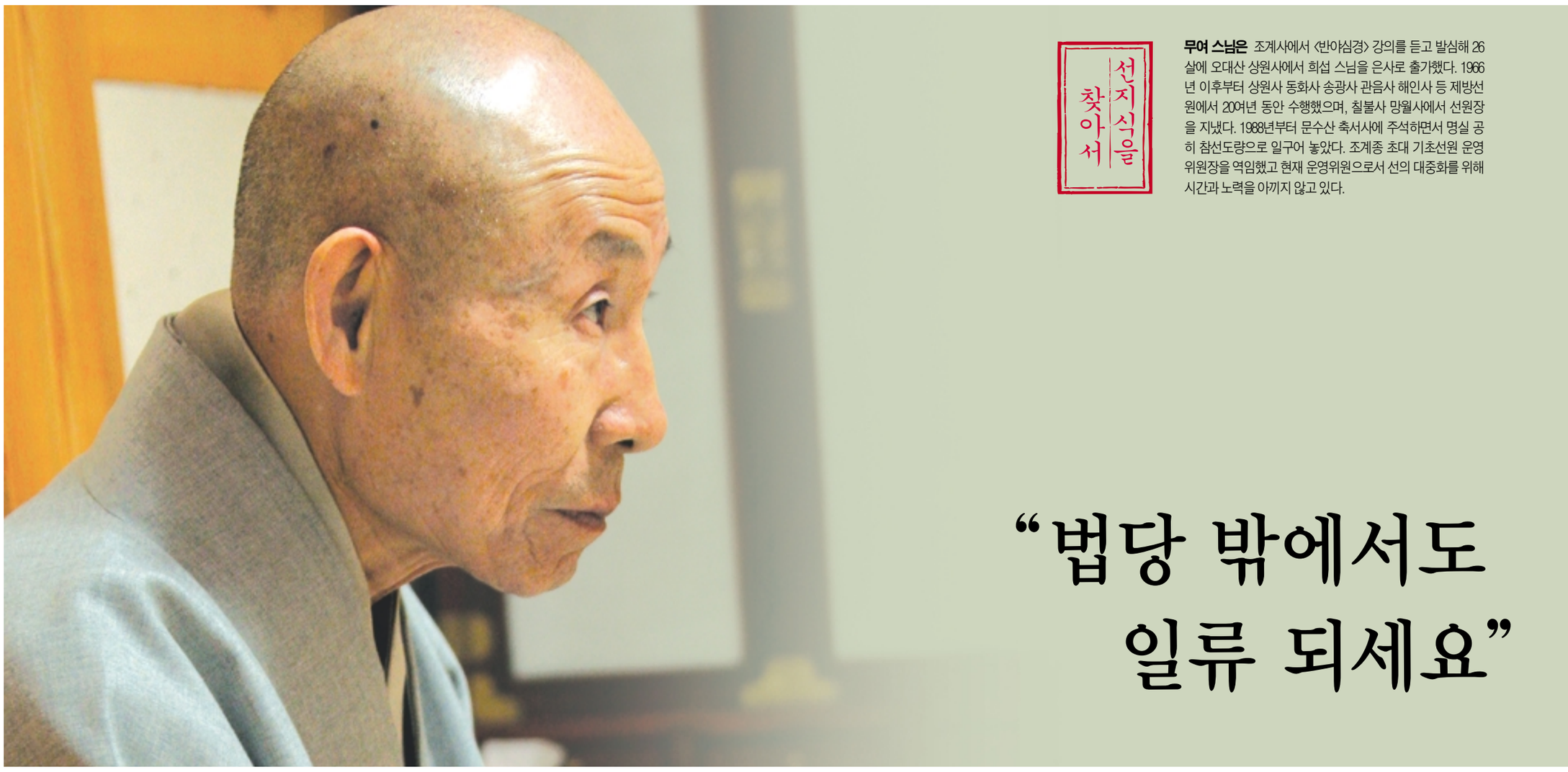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출판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사찰과 선방, 대중강연 장소를 울렸던 명 법문들을 활자화시켜 더욱 큰 공감대로 이끌어내고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법보시 책자로 꾸밀 원고를 모집합니다.**

- **감동 있는 설법으로 대중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법문으로 녹취한 원고 혹은 녹음 테이프**
- **큰스님의 일화, 수필, 법문, 명상록, 대담, 평론 등 한 권의 책자로 엮을 만한 자료**

제출처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출판부
컴퓨터 파일인 경우에는 yoyoyi91@paran.com 로 보내시고,
019-503-9152로 확인 요망

문 의 : 02)2004-8246, 019-503-9152 (책자 출판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상담 후 확정)

현대불교신문사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 02-2004-8246(출판부)



선지식을 찾아서

무여 스님은 조계사에서 〈반야심경〉 강의를 듣고 발심해 26살에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6년 이후부터 상원사 동화사 송광사 관음사 해인사 등 제방선원에서 20여년 동안 수행했으며, 칠불사 망월사에서 선원장을 지냈다. 1988년부터 문수산 축서사에 주석하면서 명실 공히 참선도량으로 일구어 놓았다. 조계종 초대 기초선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운영위원으로서 선의 대중화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법당 밖에서도 일류 되세요”

문수산 축서사로 가는 길은 짙은 안개 숲이었다. 두터운 안개 속에 묻혀있는 아슴푸레한 길을 걷는 것은 허공에 발을 내디디는 느낌이었다. 절 안에 들어서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그 몸체를 드러내고 있어 선계에 들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일으켰다.

무여 스님은 먼길 오느라 애썼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신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듯한 스님의 눈빛에 압도되어 궁금한 것이 많다고 하였더니 무어 그리 궁금한 것이 많으냐면서 우선 차부터 마시자고 하신다.

점심공양을 하고 난 후에 스님은 티타임을 즐기신다. 거품 가득한 카푸치노의 부드러운 향이 코끝에 맴돈다. 방안 사물 위에 내려앉은 고요함이 커피 잔 속에도 녹아있는지 내 안에 고요가 깃드는 듯하다.

축서사에서는 올 1월부터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참선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참선 법문과 함께 무여 스님으로부터 직접 점검과 인가를 받을 수 있어 인기 절정이다. 선수행을 하면 세속에서 받는 고통이 줄어드는지 궁금하였다.

“깨달음을 체험하면 우리의 본성(本性)이란 불생불멸이며 생사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고 본성은 영원히 죽지 않고 내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면 생사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느끼는 고통은 사라지게 되지요. 이 사회적 고통은 마음이 어두워서 분수에 넘치는 탐욕심을 낸다든가 마음을 잘못 써서 지나치게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든가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 사람들의 인사가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라고 들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닐텐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탐욕이 없어져야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런 지나친 욕심, 전도된 생각을 없애주고 고쳐주는 작업이라 할 수 있지요. 수행을 해서 선정을 닦으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사라지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행복이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루 10분씩만 정진해도 살만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몇 십 년 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풍족해진 오늘날의 우리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기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이 틀림없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앞서가려는 마음이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고 자신이 본디 가진 무한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그리고 욕심을 내어서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생존법칙에 대해 스님은 한마디로 일축하신다. 들끓는 마음을 쉬고 또 쉬어야 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한 듯 사는 것이 수행에도 좋고 인생살이에도 좋단다.

세상 사람들 하루 10분씩만 정진해도 살만한 사회 될 것

참선 속에 기도 있고 기도 속에 팔만사천 화두 들어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희망과 포부가 있어 잘 살려고 애쓰고 참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려고 애쓰는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잘 살려고 하는 것과 욕심 부리는 마음과는 달라요. 기도하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인데 아주 절실하게 성심성의껏 하는 것을 말하지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생은 공부를 하거나, 집안에서 가사를 하거나 뭐든지 내가 하는 일은 좀 절실한 심정에서 해야 돼요. 그냥 봉급만 타 먹겠다는 생각으로 직장에 가서는 적당히 일하다가 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을 하는데도 게으름피우고 남이 안 볼 때 놀아가면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분은 발전성이 없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당면한 최상의 일이라 여겨 삼매에 들 정도로 열심히 해보세요. 안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얼굴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보통이상으로 달라져요. 한 번을 하더라도, 하루를 하더라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일상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신 차리면서 산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선과 기도 중 어느 것이 좋으냐는 물음에 스님은 “제일로 수승한 것은 화두 참선이겠지만 참선 속에 수많은 기도가 다 들어있고, 한 기도 속에 팔만 사천 화두가 다 들어있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여러 가지 수행법을 망라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한다.

무여 스님은 한 평생 부처님을 지향하였기에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럴 경우 부처님은 어떤 마음가짐을 하셨을까’ 하면서 늘 부처님에게 비유하고 부처님을 생각한다. 스님은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첫째 덕목으로 ‘계행이 없으면 정(定)으로 들어갈 수 없고 지혜가 나오지 못하니 계율정신이 살아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 다음으로는 화두를 잠시라도 놓지 말고 수행에 푹 빠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비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수행자에게서 찬바람이 돌면 안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또한 재가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다.

무여 스님은 새벽 1시 반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참선하고 경전을 읽는다. 그리고 새벽 예불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평생토록 자신에게 엄격함을 잃지 않았는가 하면, 타인에 대해서는 겸손하면서도 따사롭기만 하다.

“절에 오면 그날부터 인생이 변해야 돼요. 큰 변화가 와서 부처님 같은 훌륭한 위대한 분이 되셔야지요. 불자라면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언행이 바르고 보시도 곧잘 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본받을만하다 존경할 만하다는 그런 말들을 들어야 돼요. 법당에서는 일류인데 법당 밖에서는 2류 3류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수행하는 분위기 마음 닦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오니 두터운 휘장처럼 드리운 안개가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없다. 어깨동무라도 한 듯 연이은 산들과 푸른 하늘은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개가 사라진 뒤의 풍광이 아름다워 감탄을 하자, 무여 스님은 날씨가 맑은 날이면 저 산 너머 산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축서사의 자연 또한 무여 스님의 법문 못지않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무명으로 덮여 있다는 것은 두터운 안개로 뒤덮여있음과 같아 올바른 삶의 행로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삶 너머의 삶, 자신의 근원까지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깊고도 구성진 뻐꾸기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린다. 때맞추어 노래하는 뻐꾸기에게 화답을 해야 할 것만 같은데 궁색하기만 하다. ‘아무 것도 묻지 말고, 스님을 친견한 그 시간만큼 내 업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는지를 물어라’고 응수했다.

글 · 사진= 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무여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1.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혹은「www.spiritualism.co.kr」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2. 동서양식 레이키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일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氣치료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만 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저(박희준)는 1997년 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3. 카루나 레이키 -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파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윤회전생, 초능력 문제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색상 : 회색, 흑색
• 규격 : 215-290mm (키높이 특수제작)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한용 털신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불교인재개발원 '禪의 원류를 찾아' 순례기

한송이 꽃에 다섯 잎의 향기 맡았네









달마굴 오르는 계단. 구법의 길이 순탄할 수 없음을 암시하듯 구불구불하고 계단도 가파르다. 위 사진은 버스에서 법문하는 고우 스님(위쪽 좌)과 삼조사의 환영행렬(위쪽 우), 사조사 전법동에서 예불하는 순례단.

달마굴에서 육조사까지 '강행군' 속 '禪의 맛' 심취
고우 스님 '전문가급 가이드'에 동참가들 감동의 공부

3월 6일, 중국 달마굴 앞.

9년 면벽 끝에 달마 스님과 혜가 스님의 조우가 이루어졌던 현장에서 한국 불자들은 1500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달마 스님과 만났다. 3월 5일 한국을 출발한 불자들은 모두 60여명. 이들은 조계종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인재개발원이 마련한 초조 달마 스님부터 육조 혜능 스님의 발자취를 순례하러 온 이들이다. 선의 대중화와 사회화를 위해 기획된 '육조단경 강좌'에 함께 했던 이들도 있었고, 대구 보광선원에서 동안거를 회향하고 곧바로 참여한 이들도 있었다. 부산에서 결혼 33주년을 기념하며 동참한 부부도 있었다. 네 번째 중국의 선종사찰을 답사하며 '선종사찰 전문 가이드(?)'를 자청한 고우 스님도 함께였다. 선의 사회화를 위해 <육조단경> <금강경> 강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고우 스님의 발걸음이 중국까지 이른 것이다.



친절한 안내자 고우 스님(가운데)과 순례단이 사조사를 뒤로하고 전법동 비로탑을 향해가고 있다.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 있나?

선의 원류를 찾아 한국을 떠나온 지 이틀째인 이날, 한국의 불자들은 팔 한쪽을 잘라 붉은 피로 신심(信心)과 구법(求法)의 심인(心印)을 새겼던 혜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달마 스님의 기다림은 길었고 이곳을 찾은 한국 불자들의 순례길도 멀고 멀었다. 그러나 1500년과 한국과 중국이라는 시공(時空)은 문제되지 않았다. 어둡고 좁은 굴에 몸을 숨긴 달마 스님을 넓디넓은 중국 땅에서 혜가 스님이 찾아내었듯 구하고자 하는 이에겐 반드시 드러나고야 마는 것이 법의 현묘함이 아니던가! 주머니 속의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 드러나고 마는 것이 법이요, 마음의 본질임을 달마굴 앞에서 깨닫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달마 스님의 기다림을 온전히 느끼며.

달마굴을 나오던 한 불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 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비바람이 들이치는 이렇게 좁은 곳에서 9년이나 앉아 제자를 기다렸다니 마음이 숙연해져서 불안한 마음이 오간데 없다."

경운기를 타고 한참을 달린 뒤 다시 가파른 계단을 걸어올라 도착한 달마굴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장관이다. 오른편으로 눈길을 주면 혜가 스님이 머물렀던 이조암이 가늠되고 눈길을 아래로 던지면 일조암이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다. 좁은 길이 구불구불 달마굴로 이어지고 그 길을 걸었을 혜가 스님이 눈에 그려지는 듯하다.

#만발한 유채꽃 '전법게' 처럼 아름다워

마음의 본질을 찾아 나선 일행을 반긴 것은 중국 들판에 만개한 노오란 유채꽃이었다. 스승 반야다라의 뜻을 받들어 동토(東土)에 선(禪)의 씨앗을 심었던 초조 달마 스님과 그 선맥(禪脈)을 이은 중국 선사들의 발자취를 좇아 나선 길, 그 길 위에 만발한 봄꽃은 너른 대륙에 선의 꽃을 피웠던 선사들의 전법게를 절로 떠오르게 해주었다.

인도의 27조 반야다라는 "마음에서 모든 종자가 생기고 인연의 일로 다시 이치가 난다. 과만하여 보리가 원만해지니 꽃이 피어 세계를 일으키도다"라는 전법게로 달마 스님을 중국으로 떠나보냈다. '꽃이 피어 세계를 일으키리라'던 반야다라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됐다. 이어 인도 28조이자 중국 선의 초조인 달마 스님은 다시 혜가 스님에게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해 어리석은 이를 제도하려는 것이다. 한 송이의 꽃에 다섯 꽃잎이니 열매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라는 전법게로 혜가, 승찬, 도신, 홍인, 혜능의 다섯 제자로 이어져 선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 순례단은 달마 스님과 다섯 꽃잎이 피고 졌던 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길 위에 서 있었다. 첫날 석가장에 도착, 임제 스님의 주석사인 임제사와 조주 선사 주석사인 백림선사를 둘러본 불자들의 순례길은 남쪽으로 향했다. 등봉, 정주, 숭산을 거쳐 신양에 이른 순례길에서 소림사와 달마굴, 일조암, 이조암을 참배했고, 당나라 시대 스님들의 부도탑인 탑림을 지나는 대장정이 시작됐다.

#뜻밖의 환영식… '형식'을 벗은 고우스님

3일째 삼조사인 산곡사를 향했던 일행 앞에 뜻밖의 헤프닝이 일어났다. 삼조사 주지인 관용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환영식을 준비한 것이다. 이것을 본 고우 스님이 장삼을 벗으려 했다. 일순간 일행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문경 대승사 철산 스님, 양산 조계암 상현 스님의 만류로 결국 고우 스님이 참석하지 않은 채 환영식은 진행됐다. 이날 순례단의 마음에 거친 파도가 일었다. 웬만한 경계에는 흔들림이 없던 일행들도 이날 주지 관용 스님과의 차담 시간에 오갔던 철산 스님의 선문답에 마음자락이 걸리기도 했다.

"주지 스님이 환영식을 준비했으니 그냥 응해주면 될 것을 왜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최일덕 불자는 다음 날 고우 스님의 설명을 듣고 마음의 불편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천주산으로 향했던 4일째 일정 중 사조사 전법동에 앉아 짧은 참선시간을 갖기 전 고우 스님은 전날의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선은 본래 우리 마음의 본질인데 이렇게 땀 흘리며 중국까지 와서도 형식에 얽매여서야 되겠나 싶어 내 진짜 가사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지." 불자들의 내면 깊은 곳에 울림으로 전해진 말이었다.

철산 스님의 손뼉 소리로 시작된 참선이 고요하게 이어졌다. 혜가 스님의 불안한 마음, 승찬 스님의 죄, 도신 스님의 속박된 마음이 스승과의 만남으로 일순간에 사라졌듯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불안, 죄, 구속감의 마음에서 풀려나는 시간이었다.

#혜능 스님의 숨결은 생생한데…

오조사를 거쳐 육조사에서 이르러서 순례는 절정에 달했다. 중국에서도 가장 선풍이 많이 남아있는 남화선사에서는 혜능 스님의 진신을 대하며 적지 않는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것 같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한 불자는 "생과 사의 구분이 사라지는 경계를 드러낸 진신불을 참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례"라고 했다.

가는 곳마다 고우 스님의 주제가 있는 법문이 있어 이번 순례는 더욱 뜻 깊었다. 불안, 죄, 구속감 등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던 법문이 남화선사에서는 '지혜'로 갈무리되고 있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는 것이 지혜다.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듣고 보는 이것을 벗어나서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야는 드러나게 돼 있다."

6박 7일 동안 중국 땅이 넓다는 실감을 톡톡히 한 순례였다. 6~7시간 이동은 보통이고 어떤 날은 12시간 버스로 이동을 감행해야 할 만큼 빡빡한 일정이었다. 밤 12시를 넘기는 것은 예사고, 새벽 5시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야 하는 고단함도 마음의 본질을 찾고야 말겠다는 구법의지를 꺾진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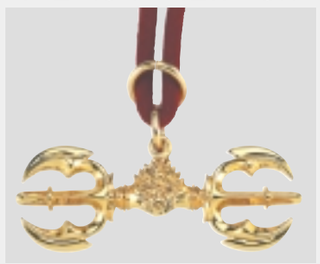
"선의 본류를 돌아보며 다시 발심하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은 불자들은 "초조부터 육조까지의 도량을 돌아보며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깨달음을 밖에서 구하지 않고 내 안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린 3월 11일 아침, 혜능 스님의 출가 사찰인 광효사를 둘러보는 순례단의 마음에는 '돌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광반조(回光返照)이며 내면에서 시작돼야 할 순례길이다. 7일간의 순례길이 떠나옴과 돌아감이 둘이 아닌 '그 자리'로 회향되고 있었다.

중국/글 · 사진=천미희 객원기자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밸트

**삼재소멸 선물!
승리의 선물 !**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밸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 (남성)님들을 위해 항상몸에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밸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밸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밸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실용신안 등록 고급밸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해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밸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金나노중지갑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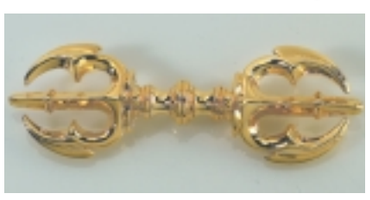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⑦ 나의 근본이 부처님이라고요?

나의 근본은 부처님

"만일 다른 종교인 보고 '당신이 원래 신(神)이다'라고 해 보세요. 그리고 '신이 될 수 있다'라고요. 어떻게 생각하겠나.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K씨는 처음 "나의 근본은 부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 전에는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뭔가 인간보다 뛰어난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교인 줄 알았었다. 부처님이란 나와는 직접 상관없는 높은 존재로 생각했다. 정식으로 불교 교리와 참선을 배우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놀란 것이 모든 존재의 근본은 불성이라는 일심(一心), 한마음이며, 누구나 그 자성(自性)을 회복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 불과한 나의 근본이 부처님이나 위대한 큰스님들과 똑같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다.

파도와 바다의 비유로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부처님 마음이 바다라면 우리 각자는 거기에서 비롯된 파도 하나와 같다는 것이다. 자신이 바다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분리된 파도라고만 알아 자기 자신에 집착한 채 살고 있다. 바다로서 전체를 보고 판단하지 못하고 사니 온갖 경계에 부딪치면서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파도란 본래 바다에서 나온 것이니 개별적인 나라는 마음을 쉬기만 하면 저절로 바다의 마음이 된다, 파도가 곧 바다인 것처럼,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었다.

부처님 되십시오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도 K씨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사는 데 쫓기어 마음이라든가 도(道)라는 것에 신경 써 보지 못했다. 결혼하고 아이들 교육에 여념이 없었고 직장도 얼마 있으면 그만 두어야 할 나이다. 노후 대책이 걱정인데, 이런 내가 정말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원래 내 속에 부처님 마음이 항상 있어왔다고? 나 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닐까. 그냥 불교공부 좀 해서 늙어서 마음 의지할 곳을 찾아보려고 한 것인데, 너무 엄청난 주문이었다. 신심이란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자성을 믿는 것이다? 바로 이 내가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 지장보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아니 원래 그 마음이 항상 있어왔다니.

"지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등 번뇌로 덮여 있는 그대로가 부처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이가 아직 어른이 안 된 것처럼 부단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노력해서 부처님 마음을 찾아야 되고 부처님 같은 행을 하셔야 됩니다."

K씨는 몇 달 기초과정에 다니며 참선을 조금씩 배웠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자극이 되었다. 자신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열심이었다. 전국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바로 그 부처님 마음을 찾으려고 정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K씨는 서서히 마음이 열려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가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성불하십시오"하고 인사를 주고받을 때마다 그래, "부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되십시오!"이지, 하면서 믿음을 굳혀본다. 초심자이지만 그동안 생각한 나가 전부가 아니라 놀라운 마음의 힘이 내 속에 있다는 말씀을 믿어보려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변화해 보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 파도가 바다서 생기듯 내 뿌리는 불심
>
> 집착하는 마음 다스리고 '부처님의 마음' 찾아야
>
> 큰 나무도 새싹이 자란 것… 발심 새롭게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

조그만 새싹을 볼 때는 나중에 커다란 꽃이나 나무로 피어난 모습이 좀처럼 상상되지 않는다.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도 믿기 어렵다. 그러나 엄연한 자연의 진리다. 생활 속에서 온갖 문제와 번뇌에 시달리는 자신을 볼 때, 그 안에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갖춘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잊을 때 참나가 드러난다"고 했다. 부처님 출가절이 다가온다. 우리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내 안의 부처님 마음을 찾기 위한 발심을 새롭게 해 보면 어떨까.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부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천수경' (상)

박성민 서울시 금천구

붉게 물들어 있는 노을에 잠시 취해 보았습니다. 지쳐버린 하루해는 어느덧 눈앞에 보이지 않고 무심한 하늘에는 낙조의 잔영으로 붉은 노을이 세상을 가득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루해가 바뀌고 바람이 달라지는 시간 속에 살랑 살랑 나뭇잎을 건드리는 바람결처럼 마음 또한 가볍습니다.

간혹 바람결에 묻어온 아이들 냄새가 두 눈가에 촉촉이 묻어납니다. 간간히 작은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던 새들도 몰려오는 어둠의 긴 그림자를 피해 나뭇잎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화려한 노을 속에 지쳐가고 있는 하루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가끔 수십 척 높이의 하얀 담장 너머로 세상을 가르며 들려오는 자동차 굉음 소리가 쉬지도 않고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듯합니다. 타의로 조용히 가라앉은 제 주변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새삼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내 허무한 삶에 수없이 원망도 하였습니다. 원망이 쌓이고 쌓여 제 가슴 속에 썩어 들어갔지만 그 또한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점점 무디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 문병성

> 희망 잃고 원망으로 사는 나에게
>
> 어머니는 '천수경' 쥐어 주셨지만…

언제부터인가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이곳에 갇혀 이렇게 후회하며 가슴에 하얀 번호를 달고 영어의 몸으로 있어야 하는지, 아직도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의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 속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간이역이라도 보일 것도 같은데 작은 바늘 끝만큼의 빛도 없이 아직도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입니다.

텅 비어 있는 내 마음의 밭에서 하루 종일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는지 저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뒤로 하고 처음으로 푸른 수의를 입던 날, 마치 세상을 원망이라도 하는 듯 가슴이 무거웠던 저를 대신해 하늘에는 참 많은 비가 쉬지도 않고 뿌려 주었습니다. 제 답답한 마음속에도 그 어두컴컴한 터널 한 가운데에서도 하염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늦은 가을비라 하기에 너무도 많이 쏟아져 내리던 그 비는 늙으신 어머니의 허망한 눈물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가진 저를 알고 있다는 듯 내리는 빗방울에 저는 더욱 서글프게 가슴으로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손을 담근다고 해서 그 강물이 멈추지 않듯이 어느덧 영어의 몸으로 생활한지 두 해가 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슴 깊숙이 파묻혀 있는 내 안의 우물 속 부끄러운 얼굴을 한참을 비추어 봤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내 삶이란 고귀한 기회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얼굴을 그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가진 것 같은 희망과 내일이 저에게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암담한 오늘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때 늙으신 어머니로부터 열심히 읽으라는 당부와 함께 <천수경>을 받았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있었기에 저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천수경>을 구석진 곳으로 내팽개 버렸습니다. 내 허망한 삶과 세상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원망만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포기와 원망 속에 지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힘겨운 바람을 등에 업고 어깨가 축 쳐진 가녀린 모습으로 찾아온 어머니를 이 세상 가장 부끄러운 이곳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을 사이에 두고 저는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갈기갈기 찢겨진 논두렁처럼 깊이 파인 주름 속에서 세월에 지쳐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전 말없이 보아야 했습니다.

이미 삶도 포기해 버리고 원망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두 손에 꼭 쥐어주던 <천수경>마저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수많은 세월 한 많은 사연을 알고나 있는 듯 어머니와 제 사이에 놓인 오래된 투명아크릴은 점점 뿌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하는 그 허망한 눈물을 전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허망한 눈물과 그 눈물의 참 뜻을….

아파도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도 누워있지 않으며 오직 부처님의 힘으로 남은 삶을 지탱하고 있다며 소리 없이 울며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 또한 말없이 가슴으로 울어야 했습니다.

마음 속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구석에 내팽겨져 뒹굴고 있는 <천수경>을 꺼내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신행게시판

한국불교대 관음사 53선지식 초청법회
대구 한국불교대학 관음사에서 3월 21일 53선지식 초청 특별법문의 첫 번째 법문이 시작된다. 21일 오전 11시 옥불보전대법당에서 열리는 첫 번째 강의는 대한불자가수회 김흥국 회장이 '재미있게 사는 길'을 주제로 걸쭉한 입담과 그의 신행담을 털어놓는다. 저녁 8시에는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이 '참선과 행복'을 주제로 올바른 수행법과 불자로 사는 행복에 대한 법문을 불자들에게 설해준다. (053)474-8228

조계사 가족소원성취 100일 기도
서울 조계사가 3월 19일~6월 26일 가족소원성취 100일 기도를 봉행한다. (02)732-2183

화엄사 웰빙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가 3월 31일~4월 1일 섬진강변에 화사하게 펼쳐진 벚꽃길을 걷고 섬진강 래프팅도 체험하는 이색 템플스테이를 준비한다. 사찰 안에서의 불교문화 체험에서 벗어나 봄맞이 가족나들이의 성격까지 포함한 화엄사 템플스테이에 동참해보자. (061)782-7600

조계종복지재단 자원봉사기본교육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3월 20일~4월 5일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여섯 번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마음을 여는 대화법, 불교와 자원봉사,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사회복지기관의 이해, 자기건강관리, 기본 간호학 등으로 구성된다. (02)723-5101

봉선사 경전반 수강생 모집
남양주 봉선사가 3월 31일까지 경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 5일 개강하는 경전반은 불교대학 졸업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문 경전을 강독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2시 설법전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3만원. (031)527-1951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3월말까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45%할인된 5만원에 드립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新 초판 매진 감사합니다.
보다 완성도를 높인
『補正版 발매개시』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도서출판 미래아이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소상히 깨쳐야 苦海를 벗어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르는<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견·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 구 입 문 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 총 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 353-6142
010-2356-6142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청국장분말
청국장환
된장/간장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 알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대두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환
▶청국장이 우리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틴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환 500g 25,000원
된장 1kg 12,000원



책 보고 그림 그리고…와! 꿈 동산 온거 같아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놀아볼까?



서가 높이를 확 낮추고 어린이에 맞는 책·걸상을 마련해 놓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유아부터 저학년까지 연령 별로 다양한 책 빼곡
구연동화 들으며 책 내용 직접 그림 그리기도
홈페이지 접속하면 영어 중국어 한자 교육까지

"어린이 여러분, 강남역에서 만나요."

서울 지하철 강남역은 약속의 장소다. 또한 사무실이 많아 어른들의 구역이기도 하다. 이런 곳에 오직 어린이청소년만을 위한 공간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다. 강남 언덕에 위치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이숙현)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개관해 아이들의 꿈동산이 되고 있는 도서관을 3월 10일, 직접 방문해봤다.

4층 건물에 자료실과 강당 멀티미디어실 등 13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1층 어린이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날은 주말이라 일찍부터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연령도 다양하다. 빼곡하게 책이 꽂힌 책장들에는 유난히 알록달록한 그림책들이 많다.

"아빠, 또 책 읽어줘."

'강아지 똥(권정생 作)'을 재미있게 읽은 은영이(7)는 아빠 박진석(39·서울 서초동)씨에게 다른 책을 골라달라고 졸랐다. 그런 아이에게 책을 골라주는 박씨의 태도가 다소 어설프지만 아이도 어른도 모두 흐뭇한 표정이다. 평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어 미안했다는 박씨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아이 손잡고 함께 책을 고르고 읽을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참 책을 읽던 아이들이 오전 11시가 되자 갑자기 자료실 한쪽에 마련된 '이야기방'으로 몰려갔다. 매주 토요일마다 벌어지는 구연동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색깔나라 여왕님 이야기에요."

구연동화 전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쁜 목소리로 '색깔의 여왕'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냥 책을 읽을 때 보다 훨씬 생동감이 있어 그런지 제멋대로 성격인 색깔 여왕님이 자기 마음대로 색깔 신하들을 부리다가 혼쭐이 나는 이야기에 아이들이 몰입한다.

이야기 읽어주기의 좋은 점은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 프로그램으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색깔의 여왕'의 경우, 이야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흰 종이에 다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크레파스로 마음껏 그리기 놀이를 하며 색깔의 의미를 배워 나가는 것이다.

"엄마, 나 보라색, 보라색~."

현민(5)이가 좋아하는 색깔을 잡지 못해서 떼를 썼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영은(6)이가 자신이 들고 있던 크레파스를 선뜻 "자!"하고 건넸다. 역시 공동 작업이다 보니 아이들끼리 부대끼면서 양보도 배워간다.

지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찾으면 영국문화원과 함께 진행 중인 영국 어린이도서 일러스트레이션 전시회 '마술연필'도 관람할 수 있다. 4월 2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에서는 안젤라 바렛, 패트릭 벤슨 등 유명 동화 삽화작가 70여명의 상상력 넘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동화책 역시 200권 넘게 볼 수 있어 영어 원어 동화책을 보고 싶었던 아이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컴퓨터로 모르는 정보를 검색하는가 하면(왼쪽), 선생님이 들려주는 구연동화도 재미있다.(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 편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오른쪽)

이날 전시를 찾은 건우(서울 운현초 3)는 "책 속의 예쁜 그림들도 좋지만 특이한 액자들도 많아 신기하다"며 신이 났다.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슴 뛰는 경험이기에 건우는 전시장 이곳저곳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린이 보다 조금 큰 언니오빠들도 도서관을 충분히 재밌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시설로는 멀티미디어실에 마련된 다양한 시청각자료들과 컴퓨터실이 눈에 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도서관학교, 청소년 테마도서 전시, 도서관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청소년 독서 동아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특히 3월 말부터 '청소년 독서동아리'를 시작, 중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도서관에 모여 독서토론을 비롯해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휴관일(둘째, 넷째 월요일과 공휴일)에는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할까? 지방 어린이청소년들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럴 때는 홈페이지(www.nlcy.go.kr)를 방문해보자.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영어, 중국어, 한자 공부까지 가능하다. 아직 컨텐츠가 많지는 않지만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 기대할만 하다.

이쯤 되면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찾기 전에 부모님들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해진다. 안정희 사서 선생님이 몇 가지 귀띔한다.

"청소년들은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혼자 와서 이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기본 예의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국립도서관의 책은 모두 함께 이용하는 것이라 아이들에게 일러주세요. 다른 친구들과 양보해가며 이용해야 하는 사실이라는 것도요.

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책에 관심이 많으셔야 해요. 아이들이 골라 읽을 수 있는 책은 한정적이에요. 올바른 독서법을 지도하시려면 부모님께서 아이의 독서 실태를 파악하고 사서와 부모님이 함께 협력, 책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충북 옥천군에서는
이원묘목축제가 열린다. 3월 23일부터 25까지 열리며 장소는 옥천군 이원면 묘목유통센터 일원일대다. 주요 행사로는 묘목접목시연회, 묘목사진전시회, 묘목전시장, 지역특산품 판매, 분재판매, 가족건강걷기대회, 농약대호, 수석·분재 전시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043)733-0073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는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청소년 및 일반인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교류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4월 14일 (사)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중국어말하기대회위원회 주최로 중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 접수기간은 3월 30일 까지. 자세한 사항은 문의.(02)761-9928

대한불교소년소녀 합창 무용단은
제15기 합창단과 무용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신입단원은 1차 자유곡, 2차 면접으로 선발하며, 매주 토요일 오후에 오디션이 있다. 응시자격은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이다. (02)725-7527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은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금붕어, 열대관상어와 단아한 모습의 우리나라 민물고기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획전 '내 얼굴 어때요'를 마련했다. 5월 31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쉬리, 진주린, 단정, 스포티드가 등 30여종 400여미를 관찰할 수 있으며 부대행사로 준비된 퍼즐 맞추기, 먹이주기체험, 참여게임, 포토코너 등도 즐길 수 있다. (051)553-4944~5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서는
8월 31일까지 어린이를 위한 고지도 체험전 '콜롬빈과 마조리, 바닷길을 열어라'를 특별전시실(도서관 4층)에서 연다. 박물관은 월~금요일과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연다. 관람료는 무료. 단, 지도 액자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인 '지도 제작자의 하루'는 유료로 운영된다. 예약 및 문의는 홈페이지(http://oldmaps.khu.ac.kr)로 하면 된다. (031)201-2013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編·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매장 埋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공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오늘은 순수한 우리말의 맛을 볼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순수한 우리말을 많이 넣어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거야말로 순수한 우리말이 언어생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그래도 자꾸 써야 자기 말이 되는 겁니다.

갈무리: 1)물건을 잘 정돈하여 간수함. 2)일의 끝맺음
컴퓨터를 마친 영수는 갈무리를 다 하지 못하고 급하게 외출하면서 동생에게 갈무리를 부탁했다.

갖바치: 가죽신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사극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갖바치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

곰살궂다: 성질이 싹싹하고 다정하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곰살궂어 인기가 많다.

그루터기: 나무나 풀 따위를 베어 낸 뒤의 남은 뿌리 쪽의 부분.
산에 올라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시집을 읽다보니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길라잡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
<컴퓨터 길라잡이>라는 책을 통해 컴퓨터 사용법을 혼자 익히고 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길에서 이뤄지는 인연, 사실적으로 묘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이효석作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필 무렵'은 1936년 <조광(朝光)> 10월호에 발표된 이효석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죠. 소설이 지닌 산문성 보다는 오히려 시의 경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작품은 '단편 소설의 교과서'라 일컬을 정도로 한국 현대 소설사에서 우수한 소설의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이 작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줄기는 남녀 간의 만남과 헤어짐과 부자 상봉을 통한 친자 확인(親子確認)이랍니다. 특히, 부자 상봉의 모티브는 오래 전부터 신화나 야담의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이효석은 이러한 부자 상봉의 모티브를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의 산길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 내었어요.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허 생원은 과거의 추억 속에 살아가는 외로운 장돌뱅이로, 성 서방네 처녀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장터에 남겠다는 낭만주의적 성향의 인물이지요. 동이는 의부의 행패로 가출한 애송이 장사꾼으로 솔직하고 순박하며 허 생원의 아들로 암시되는 청년이지요. 조 선달은 허 생원과 마찬가지로 안착할 가정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로 장돌뱅이 생활을 그만두고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며 순수 소설로 어느 여름날, 낮부터 밤까지가 시간적 배경을 이루고 있지요. 공간적 배경은 봉평 장터 주변, 대화로 가는 칠십 리의 밤길이지요. 이 밤길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즉 일정한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설정된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통로가 아니죠. 이 밤길은 떠돌이 주변인, 유랑객들에게는 안식처랍니다. 이 소설은 낭만주의, 심미주의 성격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표현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필치와 사실적 묘사가 빼어나지요. 장돌뱅이의 삶을 제재로 떠돌이 삶의 애환 속에 펼쳐지는 인간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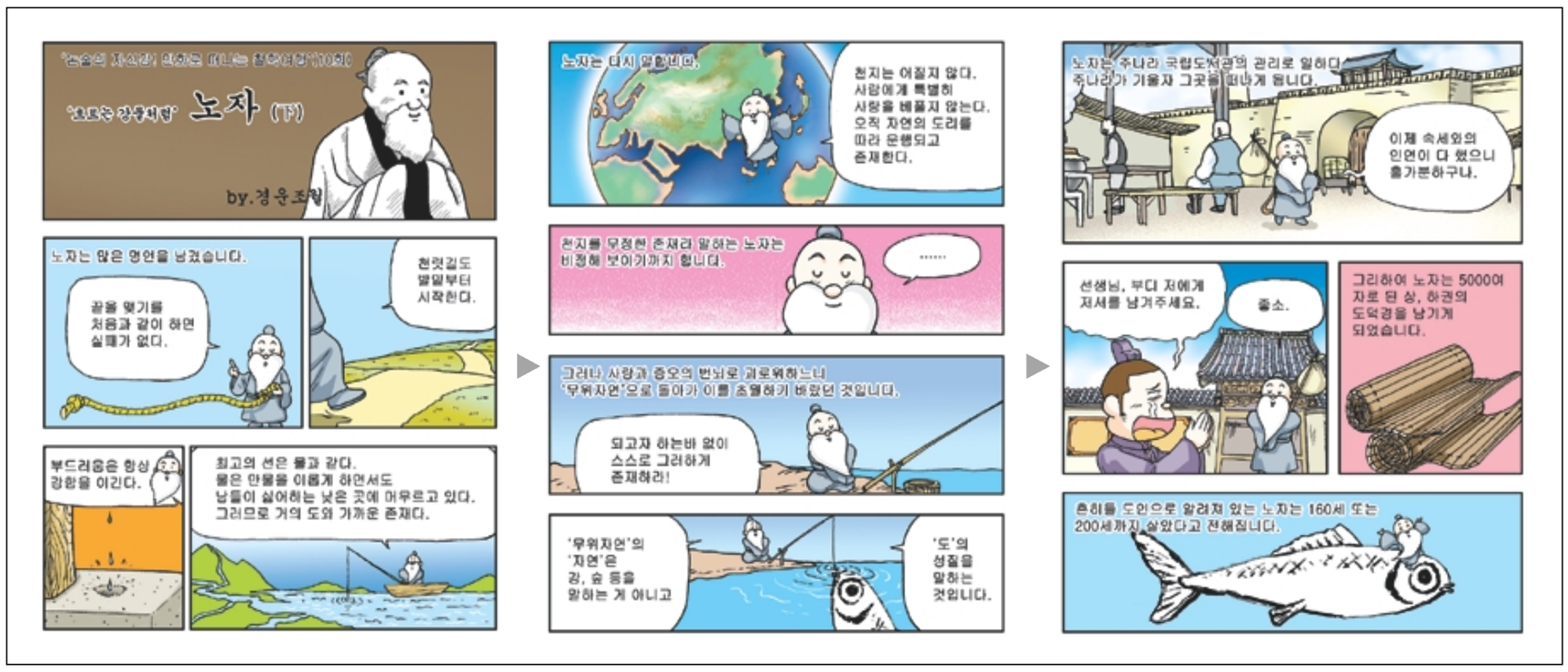
'단편 소설의 교과서'로 불려
공간적 배경 주제에 관여 특징

연의 애정을 잘 나타내고 있지요. 이 작품은 도시적 성격과는 거리가 먼 산길→달빛→메밀꽃→개울로 이어지는 산수화 같은 자연을 배경으로, 삶의 고통보다는 자연에 동화되어 지난 일을 회상하며 떠돌아다니는 한 장돌뱅이의 삶은 물론, 인간이 가지는 인연과 만남을 '길'이라는 공간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요.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은 공간적 배경이 직접 작품의 주제에 관여한 점이죠. 푸른 달빛에 젖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밤길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자연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꿈과 같은 환상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세계이죠. 작품 결말 부분의 '왼손잡이'에 대한 서술은 허 생원과 동이가 부자간이라는 암시를 주고, 허 생원에게는 동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구실을 하지요. 줄거리가 궁금한가요?

장돌뱅이 허 생원은 하룻밤의 정을 나누고 헤어진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장을 거르지 않고 찾는다. 장판이 끝나고 술집에 들렀던 허 생원은 젊은 장돌뱅이 동이가 장터 술집의 충줏집과 어울려 농지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 심하게 나무라고 따귀까지 때려 내쫓아 버린다. 동이가 달려와서 허 생원의 나귀가 발버둥치고 있음을 알려 준다.

허 생원은 개울가에 목욕하러 갔다가 물방앗간에서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친다. 성 서방네는 파산을 한 터여서 처녀는 신세 한탄을 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와 관계를 맺었고, 이튿날 성 서방네는 제천인가로 가 버린다. 허 생원은 성 서 방네 처녀가 술집에 팔려갔을 것이라는 장판의 소문을 듣고,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으나 허탕을 친다. 허 생원은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던 끝에 동이의 집안 사정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쫓겨났다는 동이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이 찾는 성 서방네 처녀가 아닐까 생각한다. 동이와 개울을 건너던 허 생원은 동이가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허 생원은 예정을 바꾸어 대화장을 보고 나면 곧바로 동이의 어머니가 산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 동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Q: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나이차가 좀 많이 나요^^). 동생한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좀 가르쳐주세요. (ID:youngzzang)

A: 착한 누나를 둬서 동생이 참 좋겠어요. 동생에게는 이런 것을 알려주세요.

1. 학교에 대한 흥미 심어주기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학교를 '즐거운 곳', '신나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요. "선생님한테 혼난다" "까불면 무서운 아이들에게 맞는다"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해요.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학교나 선생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초등학교가 유치원보다 친구도 많고 재미있는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 친구도 잘 알고 있죠?

2.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초등학생에게 생기는 안전사고의 53%가 교통사고에요. 그 중에서도 1학년 학생들의 사고가 가장 잦다고 해요. '차 조심하라'는 말로는 절대 부족한 것이 교통안전 교육이죠. 동생에게 꼭 신호를 확인하고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라고 시켜야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죠. 한번쯤 동생과 함께 등굣길을 답사해도 좋아요.

3. 나쁜 습관, 조금씩 고치세요
지금까지는, 지나쳐 왔을지 몰라도 동생에게 나쁜 버릇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줘야 해요. 한번 나쁜 습관이 드러나면 학교에서 '그런 아이'로 눈에 띄게 되니까요. 친구도 잘 알죠? 학교에서 한 번 한 잘못된 행동이 나쁜 인상으로 남게 되면 참 괴롭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동생의 나쁜 습관이 뭔지 꼼꼼히 살피면서 고칠 것은 알려줘야 해요. 혹 언니를 아무렇지도 않게 때리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부모님과 상의해서 반드시 고치세요.
그럼 동생과 함께 파이팅이에요~!

(한마음심리상담연구소)

서울 불교의식 수강생모집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 제2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29기)**

1. 교육안내
◈개강일자 : **2007년 4월 9일(월) 오후 3시** (목탁지참)
◈출 강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통 신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3. 교육기간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29기)
4.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제출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중요한 부분은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지도함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이 반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뱃속 편히 사는 길?

'간택' 만 하지 않으면…

무비 스님 '신심명' 강의, 중도로 지혜롭게 사는 길 제시

간택(揀擇)하는 마음, 증애(憎愛)하는 마음, 순역(順逆)하는 마음, 위순(違順)하는 마음, 취사(取捨)하는 마음….

가리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거스르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분별과 좋고 싫음과 따르고 거스르는 것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평온'을 원한다. 그 무엇으로부터 구속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뱃속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 얼마나 모순 된 일인가?

들끓는 욕망과 성취가 삶의 가치라고 여기는 게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중국 선종의 세 번째 조사인 승찬(僧璨) 스님은 일찍이 나병(한센병) 환자였다. 멀쩡한 사람도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많은 인간세상에서 그토록 참혹한 병을 앓는 사람이 갖는 고통은 어떠했을까? 이루고자 하는 욕망보다 이루고자 하는 욕망조차 품을 수 없는 사람의 참담함….

"저는 대풍질(한센병)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어떻게 참회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스님께서 참회시켜 주십시오."

2조 혜가 스님을 찾아가 온 마음으로 바친 한마디.

"그대가 죄가 많아서 그런 병을 앓고 있다고 하니, 그 죄를 가져와 나에게 보인다면 그 죄를 내가 참회시켜주겠다."

2조 스님 역시 스승 달마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라는 가르침으로 눈을 뜬 터가 아닌가? 승찬 스님은 2조 스님의 '죄를 가져오라'는 말 아래 '공'의 도리를 깨치게 된다. 그간의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자신을 향한 좌절도 봄눈 녹듯 녹아 내렸을 것이다. '죄를 가져오라'는 한마디에.

진리는 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짧은 한마디에 우주를 품는 진리가 들어 있다. 길면 그 뜻이 흘러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데 방해가 되는 법이다.

<신심명(信心銘)>은 짧다. 대풍질의 고통을 한 마디 '공'의 가르침으로 녹여버린 승찬 스님이 전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지도무난(至道無難) 유혐간택(唯嫌揀擇).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며 오직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신심명>은 짧은 시구로 된 가르침이지만 이미 초반의 이 두 구절에 뒤의 모든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다. 욕망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그림자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간택심'이다. 이 간택심만 버리면 도에 이를 수 있고 도에 계합된 삶을 살 수 있다. 간택심을 달리 표현 한 말이 뒤에 줄줄이 나오는 증애심 순역심 위순심 취사심 따위들이다.



무비 스님의 신심명강의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 출판사
9000원

승찬 스님의 <신심명>을 원전만큼이나 간결하게 풀어 준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강의. 그 강의록을 묶은 <심심명 강의>를 읽어보면 승찬 스님의 가르침과 무비스님의 노파심이 절절하기 그지없다. 무비 스님은 '중도'의 원리를 바르게 깨치는 것이 잘 사는 길 즉, '지도(至道)'의 길임을 누차 강조한다. 쌀을 얻기 위해 벼의 뿌리도 줄기도 겨도 다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쌀이 필요하다고 하여 뿌리와 중기 없는 벼를 구할 수 없고 겨 없이 쌀을 얻을 수 없음을 간파하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과 사물을 그렇게 동등한 가치로 이해하는 것이 '간택심'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

욕망의 뿌리를 끊어 버리는 지혜, 간택하지 않고 중도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신심명>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이 무비 스님의 당부다. <신심명>을 가슴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 맨 마지막 구절이 답이다.

"언어도단(言語道斷) 비거래금(非去來今)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는게 힘들땐 '종이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라

사는 것이 재미없을 때, 혹은 살기 힘들어 몸도 마음도 축 늘어질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용기? 희망? 술? 친구? 사람에 따라 달리 답할 것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다. '웃음과 감동'이다. 늘어진 어깨에 힘을 주는 웃음이 그립고 무기력해져 가는 정신을 바짝 끌어당길 수 있는 감동이 필요한 사람은 '종이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라.

'내 몸은 유리 거울이 비춰주고 내 마음은 종이거울이 비춰준다.'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이 '종이거울 보기 운동'을 시작하며 내세운 모토다. 다소 긴 표현이지만 뜻은 바로 와 닿는다. 종이거울. 책이다. 책에 자신을 비추면 좌절을 극복할 힘이 생기고 무기력한 마음이 곧추세워진다.

(사)보리 김재일 대표가 묶은 <종이거울>은 삶에 지쳐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없이 맑은 거울이다. 잘 알려진 위인들에서 '무명인'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의 감동과 지혜를 주는 일화들을 모은 '거울'이다. 김재일 대표는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도반'이라 말한다.

<종이거울>에 비치는 이야기들이 길동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00자 내지 400자 정도의 짧은 이야기 한 편을 읽는 것, '종이거울'에 슬쩍 마음을 비춰 보는 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영양제' 역할을 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

임연태 기자



종이거울
김재일 엮음
종이거울 | 8000원

"한 번만 읽어도 사는 가치 느낀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 세상에서 가장 잘 생긴 사람,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야 마음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 행복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행복수업 중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입보리행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이것이 성스러운 경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장경도 이것을 <보리행경>이라 부른다. 책은 쉽고 간결하다. 여기에 아름다운 표현들이 가득해 책장이 술술 넘어가게 한다. 내용은 주로 '보리심의 공덕'과 '보리심 일으키기' '6바라밀' 등이다. 일종의 잠언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한 구절씩 읽어나갈 때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게 만든다.

김영로씨는 "이 책은 티베트인들이 죽기전에 한번만 읽어도 삶이 보람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추앙받고 있는 책"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샨티데바의 행복수업
샨티데바 지음
김영로 옮김
불광 | 9800원

재소자의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

노모가 기거하는 방은 한 두 사람이 겨우 발을 뻗을 정도로 좁고 초라했다. 게다가 한 겨울인데도 온기가 전혀 없었다.

"어머님, 연탄 없으시면 제가 좀 사다드릴까요?" "아뇨 연탄은 많아요" "그런데 왜 안 때세요?" "내 자식이 차가운 감방에 있는데, 어미가 돼서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겠어요?"

어느 사형수 어머니와 재소자 포교의 대부인 삼중 스님(자비사 주지)이 주고 받은 대화중 일부다.

이 책에는 삼중 스님이 40여년동안 만난 재소자와 사형수 어머니들이 흘린 통곡의 눈물들이 담겨져 있다. 정말 그 어머니들의 사연은 애절하다. 평생 가족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죽인 아들 김정도(가명)씨의 어머니 등이 삼중 스님을 만나 법무부에 탄원해 아들을 감형시키는 감동적인 과정들이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 사형수의 눈물을 따라
박삼중 지음
소담 | 9000원

'천태지관'의 이해 선불교 이해의 열쇠

중국선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지의 스님(538~597)의 '천태지관'을 이해해야 한다. '천태지관'은 교관일치를 통해 수행의 성격과 거기에 정비된 행(行)의 체계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태지관'은 삼종지관(三種止觀)과 사종삼매(四種三昧)를 핵심으로 한다. 삼종지관이란 점차지관(漸次止觀), 부정지관(不定止觀), 원돈지관(圓頓止觀)으로 불도의 오수를 내면적으로 증오(證悟)해 가는 쪽에서 형태상 분류 종합한 조직이다. 이에 비해 사종삼매는 상행삼매(常行三昧), 상좌삼매(常坐三昧), 반행반좌삼매(半行半坐三昧), 비행비좌삼매(非行非坐三昧)를 말하는데 외면적으로 불도를 닦아 얻는 실제적인 행위양식상에서 분류 종합한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만 숙지하고 있더라도 '천태지관'이 중국 선사상의 큰 맥을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천태지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많은 책들이 출간돼 있다.

그중 동경대 강사인 신다이 세키구치가 쓴 <천태지관의 연구>를 동국대 강사 혜명 스님이 쉽게 번역해 최근 펴냈다. 제목 역시 <천태지관의 연구>다.

이 책은 지의스님의 실천론인 천태지관의 구성과 특색에서부터 천태지관의 성립과 경위, 전개와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 놓아 전공자 이외에도 선 수행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특히 천태지관의 성립과 경위에는 삼종지관과 삼종교상, 좌선과 25방편, 선과 지관, 사종삼매와 10승관법, 사홍서원과 6즉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해설해 놓았다.

김주일 기자



천태지관의 연구
신다이 세키구치(關口眞大) 지음
혜명 옮김
민족사 | 2만5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2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3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4	삶과 죽음, 바르도의 실체	중암	정우서적
5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	운주사
6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7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8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9	옛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장경각
10	운명을 바꾸는 법	정공	불광출판부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원효 스님 구도여정 무대에

연극 '환화여 환화여'

4월 9일~10일 부산문화회관서 일심사상에 초점 맞춰 구성

당나라 유학길에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은 뒤, 유학을 포기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간 원효 스님. 그의 파계와 득도에 대한 구도여정을 그린 이야기가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들어져 무대에 오른다. 제목은 '환화여, 환화여'다.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기간중인 4월 9일(오후 7시30분)과 10일(오후 4시30분/7시30분)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상연될 이 연극은 극단 액터스의 야심작이다.

내용은 대강 이렇다. 의상 스님과 당나라로 향하던 원효스님은 공동묘지에서 해골에 고인 물을 샘물로 착각해 달게 마셨지만 다음날 해골물임을 알고 구역질을 한다.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분별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으며, 분별심만 없애면 지옥과 극락이 따로 있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스님은 그 길로 유학을 중단하고 번뇌에 시달리는 중생들 속으로 들어간다. 한편, 요석공주는 되돌아온 원효 스님에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알린다. 이에 원효스님은 파계를 하지만 이 일로 더 큰 분별심을 깨닫게 되며 마침내는 중생을 위한 큰 기둥이 된다는 내용이다.

설사 불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 정도는 다 아는 국가대표급 일화다. 그럼 연극 내용도 뻔하겠지 생각했다간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다소 식상한 전체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을 주제로 한 연극 '환화여 환화여' 연습장면.

즐거리는 단지 국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건더기는 원효스님의 일심(一心) 철학이다. 하나는 곧 일체이고, 많은 그것이 곧 하나라는 일심의 사상이다. 맑고 깊고 넉넉한 우주의 근본자리인 마음철학을 무대에 고스란히 펼쳐 보인다. 그래서 배우들은 꼭 불교라는 테두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심사상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해석하려 고민했다.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선 탄탄한 연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극단측은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 캐스팅에 무척 신경을 썼다. '십이야' '피노키오' 등 다수의 작품에서 열연한 유재명씨에게 원효대사를, 러시아 스타니슬로브스키 연기학교 출신인 김민니씨에게 요석공주를 맡겼다.

연출을 맡은 정순지(부산시립극단)씨는 "원효라는 매개체를 현재의 시대에 불러내 그가 남긴 일심사상을 되새기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잠시나마 자기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미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불교언론인 출신인 김숙현씨가 쓴 '환화여, 환화여'의 원제목은 '회향송'으로 제 2회 한국희곡문학상 수상작이다. 대덕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원효 스님이 헐벗고 굶주린 이들과 어울려 무애가를 부르며 아픔을 나누는 모습이 진정한 회향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었다. 그러다가 1999년 대폭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제목으로 바뀌었다.

귀족 불교를 거부한 채 고달픈 민중의 삶 속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살다간 원효스님의 구법정신(求法精神)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화두이기에 '환화여, 환화여'의 빛나는 파티가 몹시 기다려진다. (051)645-3759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⑤

다양한 활동 속 발전 발판 다져

1960년대 - 1970년 ②

운문 스님은 랑승일씨와 김정묵 포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찬불가를 정리하고 1956년부터 직접 제작한 찬불가 87곡을 '언니노래' '동생노래' '애기노래' '의식노래' 등으로 분류하여 편찬했다.

이렇게 노력하는 스님을 본 불자들은 오르간을 기증하고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연습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반지를 팔아서 난로를 마련하여주기도 했다. 1963년에는 한 불자가 피아노를 기증했다. 당시에는 피아노가 상당한 고가품이어서 장만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불교음악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피아노가 필요했다. 연습실에 피아노가 없어 안타까워하자 피아노를 살 수 있도록 한 불자가 계약금을 내주고 나머지는 운문 스님이 완납한 것이다. 운문스님은 이해창 하모니카 할아버지와 함께 직접작곡도 하고 전국의 어린이회와 학생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모니카 반주에 맞추어 찬불가를 지도하고 의식 때마다 찬불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셨다.

1968년에 종립학교인 대전 보문고등학교에서는 브라스밴드와 합창단이 불교계의 최초의 교성곡인 '화엄회상'을 연주했다. 종단협의회 연구 발표 곡으로 선정되어 작곡가 최영철씨가 작곡하여 직접 지휘했다.

운문 스님 찬불가 87곡 분류 편찬

1968년 불교계 최초 교성곡 연주

1960년대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면서 불교음악계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불교음악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 운문스님이 '불교동요집'에 머리말을 통해 밝힌 이야기를 들어 보자.

"이 불교동요는 어린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씩씩하고 건전하게,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노력한 끝에 이 조그만 책자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는 어린이로서 좀 더 뜻있게 배우고 재미있게 자라기 위하여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과 흥겨운 노래를 하나하나 모아서 엮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조그만 동요집이 어린이 여러분의 착한 벗이 되어 즐거운 길동무가 된다면 그리고 불교를 믿는 어린이들을 교화 육성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된다면 편집자는 이것으로써 만족할 뿐입니다. 이번에 어린이 여러분과 어른까지라도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성가집>을 발간할 예정이었던바 여러 가지 형편상 성가집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이 <동요집>만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작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곡은 본인이 작사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 출판에 여러 가지 면으로 적극 힘써주신 스님, 신도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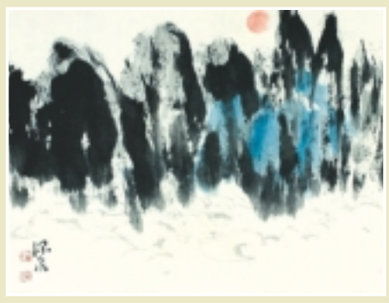


그림: 이상배 화백

설악산 계조암

장인성 시인

설악에 올라 계조암을 물었더니
바위돌을 가리키며 바위 속에 있다 하네
둘러보면 모두가 바위 뿐인데
바위 속에 들어 앉아 바위굴을 찾느냐고
고사목이 우지끈 죽비(竹?)를 치네.

계조암(繼祖庵)-설악산 흔들바위 밑에 있는 석굴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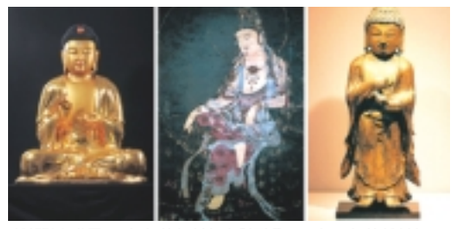
부처님 우리 곁에오셨네

불교중앙박물관 개관특별전 3월 27일~5월 24일

고귀한 자태와 화려한 색조를 자랑하는 국보 및 보물급 불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는 3월 26일 문을 여는 불교중앙박물관이 개관기념으로 27일(부처님 출가일)~5월24일(부처님 오신 날)까지 '佛(붓다)'을 주제로 여는 특별전에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상과 불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투어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전시되는 유물은 모두 120점. 이중 국보와 보물 16점과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동비로자나불 입상 등 일본에서 빌려온 유물도 함께 선보인다.

우선 국보로는 대구국립박물관에서 대여한 '금동불입상'(제182호), 청주국립박물관에서 빌려온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제106호) 등이 있다. 보물로는 '영탑사금동삼존비로자나불입상'(제409호), '약사불입상'(제 328호), '수월관음도'(제 1332호), '영산회상도'(제 1397호) 등 13점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 알려진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비롯해 15세기에 제작된 용문사 소장 '목조지장보살좌상', 창원 백월산 남사 소장 '반가사유상', 수종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크기 표정이 제각기 다른 높이 10㎝의 '금동다불' 12점 등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성보문화재도 이번에 만날 수 있다. 이중 '반가사유상'은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유물이어서 관람객들의



(왼쪽부터)목조아미타불좌상, 수월관음도, 비로자나불입상.

시선을 한동안 고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관전은 무엇보다 일본 박물관에 소장된 우리 주요 불교문화재 3점도 감상할 수 있다.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금동비로자나불입상'(높이 52.8㎝, 9세기)을 비롯해 고려미술관 소장 '치성광불회도', 나라 호린지(法輪寺) 소장 '관경십육관변상도' 등을 국내 최초로 일본에서 대여해 왔다.

특히 1569년에 제작된 '치성광불회도'는 치성광여래(불교에서 북극성을 부처로 바꾸어 부르는 이름)를 그린 조선 불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 이 세 점 모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납업자인 오쿠라가 약탈해 보관하다가 1982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일명 '오쿠라 컬렉션' 유물들이다.(02)2011-1060~5

김주일 기자

'한국의 불교미술' 강의

삼성박물관 '리움'

삼성미술관 리움이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 강의를 연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27일 '석굴암-신라의 이상적 신체미' △4월 3일 '삼국유사에서 찾는 신라 불교미술의 꽃' △4월 10일 '불교공예품과 사리장엄구-불꽃 속에 피어난 깨달음의 정화' △4월 17일 현장학습 △4월 24일 '한국 범종의 특징과 변천-중생 제도의 원음' 순으로 진행된다.www.leeum.org

김주일 기자

瑞榮普洱
정해년 고객감사 이벤트
3만원이상 구매시
선물로 서영보이에서 자사돼지를 드립니다(200개한정)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 보급 안내

◎ 法象道(법상도)는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총기 사억팔만사백전장경 목록을 당나라 현장법사와 함께 서천에 가서 모셔온 가장 길하고 상서로운 흰코끼리(백상:白象)의 法道(법도)를 나타낸 것이다.

◎ 이 백상(흰코끼리:白象)의 둘레에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을 써서 조성한 법상도(法象道)는 불자라면 누구나 필히 한품씩 집안에 소장할 필요가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성품(聖品)이며, 길상품(吉祥品)으로서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과 함께한 법상도(法象道)는 한마디라도 영험이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라고 자은전 10권(慈恩傳10권)등의 자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법상도(法象道)의 가장 큰 영험은 특히 고증자료에서 "중생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가장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집안에 두면 장경 전부를 읽는 공덕을 얻고, 무량제 불이 호위하시며 세세생생에 수복무량하고 일체 재해가 스스로 소멸하며 살아서는 소원성취와 호신용으로 죽어서는 극락왕생 보장책으로 그 영험이 크게 있다"하였다.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액자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의 효험

-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 액자는 집안에 거는 날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 재앙이나 재난을 미리 예방해 주는 효험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나 식구들의 건강이 염려되시면 불보법상도 (佛寶法象道)액자를 구하시어 집안에 걸도록 하십시오.
-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해 주고 예방해 줌은 물론, 어느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여 놀라는 일 등이 없을 것입니다.
- 이미 몹쓸병에 걸렸거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거나 호전시켜주는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팩스768-8413

⊙소재 : 팔 패 - 고급 무늬목재
법상도 - 특수 금속판에 직접 조성,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기법처리

⊙규격 : 45cm × 45cm ⊙보급가 : 20만원

달라이라마 예증 림마돌체라마 린포체 친견법회

(국제보살계 · 마정수기 · 합동조상천도재)



198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티벳승왕 달라이라마님께서 공식 인정한 림마돌체라마 린포체님의 맑은 영혼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대중불교문화원, 해원여행사(해외불교성지순례전문) 011-229-1068
(사)전국불교체육인연합회 054-464-4735, 010-4802-5288
010-3933-97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극락사 054-535-1669, 016-9281-1666

협 찬 : 한국불교사암 총연합회
후 원 :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전통 조계종

※탱화 및 목불상 조성을 원하시는 사찰은 네팔에서 특별히 제작하여 아주 싼 가격으로 해드립니다.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4. 육조의 오도송(하)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 묻지 않도록 하라

– 신수

깨달음에 본래 나무 없고
거울 역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 일어나리오

– 혜능

후학 납자들이 6조가 의발을 전수 받은 이야기를 공안으로 삼은 많은 게송이 있다. 그 중 두 수만 음미하자.

㉮
그 옛날 황매가 이 뜻을 전하니
當日黃梅傳意旨
불법을 아는 이가 갈대같이 많았네
會佛法人如竹葦
기린과 용의 두각이 모두가 허사되니
麟龍頭角盡成空
노도령은 그들과 비슷하지 못했네
盧老無能較竺子

– 불인원

㉯
못 끊고 쇠 자르니 큰 재주는 도리어 바보와 같다　斬釘截鐵大巧若拙
한 마디로 한 사람에게 전하니 불법을 알지 못하네　一句單提不會佛法
제 멋대로 잎이 지고 꽃이 피나니
儘他葉落花開
봄가을의 춥고 더움을 묻지 않으리
不問春寒秋熱
다르다 다르다　別別
만고의 푸른 못엔 하늘의 달이니라
萬古碧潭空界月

– 원오극근(<선문염송> 권4, 112칙)

신수 · 혜능의 게송 공안 삼아 지은 선시 많아
진리 당처와 계합하는 경지에 초점
"만고의 푸른 못엔 하늘의 달이니라"

㉮의 게송 1행과 2행에서 '5조가 뜻을 전하니 불법을 아는 이가 갈대같이 많다'라고 함은 지식이나 좀 더 나아가 직관지로서의 진리의 구경처, 본래면목을 간파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아는 것은 가능하다. 진리 당처와 계합하는 것은 이미 안다는 차원이 아니므로 이미 알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단지 알았다 이해한다는 차원일 뿐, 바로 그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노호를 아는 것은 허락하지만 노호와 영회(領會)함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영회할 것인가? 4행에서와 같이 '단지 노행자가 그들과 다를 뿐' 그 외는 달리 무어라 표현하겠는가?

㉯의 게송은 선문 제일 서라는 <벽암록>을 편찬한 원오 극근의 시다.

이취(理趣)와 선지(禪旨)가 물씬 풍기는 게송이다. 1행과 2행에서는 '뛰어난 견해를 가진 대중이 무수히 많지만 오직 불법을 혜능에게만 전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불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

진리의 당처인 본래면목을 영회하는 표현법을 쓰고 있다. 3행과 4행의 "제 멋대로 잎이 지고 꽃이 피나니/봄가을의 춥고 더움을 묻지 않으리"는 불법의 운행을 말한 것이다.

자, 여기서는 부지불식간에 피고 지는 만물, 봄이다 가을이다를 잊는, 함이 없는(無功用) 삶. 이것은 일체 만물, 불법, 구경의 당처인 본래면목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그럭저럭 산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행인 "별별, 만고벽담공계월"(別別 萬古碧潭空界月)에서 '다르다 다르다'는 세계가 숨기고 있는 진면목에 대한 계합(契合)이니, 놀랍고 놀라울 뿐이다.

그 놀라움을 알고자 하는가? '만고의 푸른 못, 하늘엔 달. 달 속에 갇힌 푸른 못'이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❹

진짜를 닮고 싶은 '짝퉁인생' 묘사

고은은 불교적 상상력과 선적 방법으로 시를 쓰는 시인이다. 초기의 실존적 허무에서 1970년대 사회적 현실로 문학의 방향을 전향한 이후, 문학이나 삶의 탈정치성과 탈사회성에 동의하지 않는 시인이다. 그가 한국의 문인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로 유력하게 꼽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동양과 불교,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다. 그의 삶 또한 극적이다. 1951년 군산 북중학교 미술교사 겸 국어교사로 특채되어 교사를 하다가 군산 금강사(현 동국사)에 머물던 혜초 스님을 만나 출가하여 일초라는 법명을 받았다. 1953년에는 효봉스님의 제자가 되어 구걸행각을 하다 안국동 선학원에 들어가서 불교 총무원 간부, 전등사 주지, 해인사 교무 및 주지대리, 불교신문을 창간하고 초대 주필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시적 대상을 직관하여 순간의 상황을 파격적 언어로 포획하는 창작방법을 구사한다.

옷 한 벌 없이 살아가는
휴전선 짐승들에게
달마을 덕보에게
미안하구나

바람부는 날
나는 제일모직이라는 걸 입고
집을 나선다

개들아 악발이로 악발이로 짖어대어라
나 또한 거지이거나 도둑이거나
그 중의 하나

– '출타' 전문

부끄러움 가득
고은 | 시학 | 1만원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인 자신이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짐승들이나 마을의 개(덕보)에게 미안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거지가 아니면 도둑이니 악발이로 짖어달라고 주문한다. 자신을 짐승의 급수로 맞추거나 거지이거나 도둑이라고 자인한다. 그의 대부분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상상은 독자에게 읽기의 충격과 정서적 파장을 일으킨다. 또 그는 시에 비교과서적이고 상식 모반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여 비약의 쾌감을 주기도 한다. 그는 인간을 '짝퉁인생'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렇다, 우리는 거개가 짝퉁으로 산다. 진짜를 닮고 싶어 하는 짝퉁인생인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짝퉁인 것이다.

짝퉁
이 날말을
내 사전에 올리리라
무섭구나
나는 누구의 짝퉁이냐
그 누구는
누구의 짝퉁이냐
밤길 철새
연달아 가는
이 상호텍스트의 한 날말을
내 원시어사전에 꼭 올리리라
짝퉁은 진짜의 끝 아니냐 그 지긋지긋한 진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냐

– '짝퉁' 부분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❹ 땅두릅 죽순전골

아직 날씨가 쌀쌀하지만 3월 21일 춘분을 맞아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춘곤증도 생기고 계절이 바뀜에 따라 몸이 자주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몸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봄나물을 이용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땅두릅, 독특한 향 입 맛 되살려
죽순은 장 연동 촉진 변비 해소

오늘 만들어 볼 땅두릅 죽순전골은 영양이 풍부해 환절기에 약해지기 쉬운 체력을 보완해줍니다. 땅두릅의 독특한 향과 말린 죽순의 약한 발효된 듯한 묵은 맛이 어우러져 잃었던 입맛을 되살려줄 것입니다.

땅두릅은 한의학에서 '독활(獨活)'이라고도 하는데, 체력이 약하거나 신경쇠약, 정신 및 육체 피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땅두릅나무 껍질을 70%의 알코올에 우린 후 하루 3번 30~40방울씩 마시면 저혈압이나 신경쇠약 등에 도움이 됩니다.

죽순은 장의 연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해소하고 이뇨작용으로 신장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체내 노폐물을 빼내에 혈액을 정화시켜줍니다.



땅두릅 죽순전골

재료: 땅두릅, 죽순 말린 것, 두부, 숙주나물, 들깨즙, 된장.

1. 땅두릅은 살짝 데쳐서 굵은 것은 1/4로 쪼개고 가는 것은 1/2로 쪼갠다.
2. 말린 죽순은 4시간 전에 따뜻한 쌀뜨물에 담가두었다가 땅두릅과 비슷한 굵기로 찢어놓는다.
3.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기름에 지져 땅두릅, 죽순과 비슷한 굵기로 채썰어 둔다.
4. 숙주나물은 깨끗이 씻어둔다.
5. 먼저 죽순을 된장으로 밑간한 다음 물을 붓고 센불에 끓이다가 약한 불에 은근히 끓여 죽순 맛이 충분히 우러나게 한다.
6. 다음으로 땅두릅을 넣고 중불에 한소끔 끓이면서 무르게 하고 두부를 넣고 중불로 끓인다. 마지막으로 숙주나물을 넣고 한소끔 끓인다.
7. 들깨즙을 넣고 끓이다 된장을 넣고 간을 맞춘다. 단, 들깨즙이 끓어 넘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향엄당 설산 대선사 49재 안내

일평생 염불수행으로 일상을 삼매하신 향엄당 설산 대선사께서
2007년 3월 6일 오후 6시 世緣 離盡하시었습니다.
큰 스님의 장례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禮를 올리며 49재 일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엄당 설산 대선사 49재 일정

초재	3월 12일 (음 1월 23일)	부산 정토사	오전 11시
2재	3월 19일 (음 2월 1일)	서울 정토사(삼각산)	오전 11시
3재	3월 26일 (음 2월 8일)	서울 도선사(삼각산)	오전 11시
4재	4월 2일 (음 2월 15일)	강원도 건봉사(금강산)	오전 11시
5재	4월 9일 (음 2월 22일)	청도 대각사	오전 11시
6재	4월 16일 (음 2월 29일)	동산불교대학(서울)	오전 11시
7재	4월 23일 (음 3월 7일)	서울 정토사(삼각산)	오전 11시

향엄당 설산 대선사 염불만일회 문도일동 합장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공 고
지난 2월 28일자 선암사 주지 당선공고 중 경쟁 상대였던 임 호명 스님 법명이 본인의 동의없이 게재된 것에 대하여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면 지면을 통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암사 사태 수습위원장 겸 전산총회 의장 원명

역학속성 개인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건강뜸
기초에서 완성까지
1개월 수료후 문서기증
도성암 점법스님
010-7443-3060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 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연화석예석재 (구. 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567-1260
전송 031)551-1500.564-2464
e-mail:yhstone3535@hanmail.net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비법전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정 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2000년도 포항시
기계면 구자리 안국사에서
1년동안 머물다간
스님을 찾습니다
충청남도 한산섬에 방생
법회도 같이 갔었습니다
연락기다립니다
054)243-7235
안국사 공보살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천일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절충)
50~60대
▷ 서울구로
010-9478-9607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불교의식 및 서화등등에 능통한 법랍30여년, 세수 50대 초반의 청정비구로서 불사도우며, 안거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을 찾고 있습니다 비구, 비구니, 보살 또는 처사가 운영하는 사찰, 모두 가능합니다
011-854-8107

500나한 기도도량 선지사
1000일 기도스님 모십니다
행자 공양주 모집
055)329-1056
011-488-1056

각종병고무료
치료해 드립니다
병고치료(의료)봉사 원력을 세운 비구입니다. (신)병,정신병,중풍,빙의등 각종 만성불치병) 병고치료 도량을 불사하거나 보시하실 분을 찾습니다
011-222-8485
침구의사, 중의학박사 성월스님

행자 및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산사 입니다
011-722-3418

조용한 암자에서
성실하고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1-845-1910

절에서 수행하며
표고버섯, 유기농 약초 재배 하실
경험있는 처사님
(내외분)은 연락바랍니다
▷경북 청도
054)372-5702

기도스님 (비구니) 모십니다
062)672-0009
010-6712-21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256-2655

행자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평택
031-682-3169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전화주십시오
054)433-6315
010-4520-6787

총무보살,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493-1121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해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서울도심에 있는
산사 같은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사찰입니다
기도정진할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13-7425

암자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옆
•대웅전 건물 40평
앞은 금강이 흐르고
뒤에는 천봉산과 달맞이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명당터
010-3545-9992
043)732-8285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조계산 선암사에서는 일정기간 습의, 교육 후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 등에서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예비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61)754-5247(종무소)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태고총림 선 암 사

2년에 고등학교 졸업장!
학령기를 놓친 스님 또는 불자님에게 고등학교 졸업기회부여!
■자격:중학교 졸업자
■구분:보통과,전통예술(불교미술:단청,탱화, 불교음악:범패)
※본교를 졸업(학력인정 고등학교)하면 대학을 진학 할수있습니다
■홈페이지: www.yeun.sc.kr (주간,야간운영)
055)583-6300. 011-1752-6800
학력인정 연꽃자유고등학교 교장 일광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과 출가하여
불교에 입문할 예비스님을 모십니다
문의전화 033)671-7751~3
Fax 033)671-7752, 011-352-7751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설악산 불탑사 · 종립승가대학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운세를 바뀌게 하는 게 28숙기도이며 누구나 이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별지도는 승려에 한함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송월스님의 "사주학 핵심비결"강의
철저한 실전위주 통변기법 공개된다
◆新사주학 핵심비결, 육효학 핵심비결저자 (관음출판사)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역학" 전담교수
군산 성흥사(행자전문교육도량)
063)453-0050 www.성흥사송월.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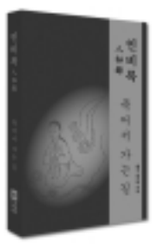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행자모집 (총무스님) 문의: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재가불자님을 더불어 모십니다
◈ 도량석 종성 향수해례 사성례 각 단의 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지장청 등 모든 불공
◈ 상장례의식 시다림법문(임종염불) 방생의식
◈ 관음시식 구병시식 종사영반 등 영반 시식
◈ 천도재 예수(시왕각배)재 등 모든 재 의식
◈ 점안(불상 탱화 가사) 이운(사리) 의식
◈ 신중작법(104위 39위), 정기 특별 법회의식
◈ 혹 주요경전과 의식의 우리말 독송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 화청(서울 영남) 축원화청(서울 경기) 국악의 회심곡은 어떠하십니까?
서울경기 대구팔공산 영남의 범음을 함께 비교하고 느껴보십시오!
◈ 불교의 무용(바라 착복 법고)은 큰 행사의 꽃이지요, 큰 공양을 위하여 배워보십시오.
이 모든 진행은 소리와 사물(목탁 요령 북 광쇠혹 호적)의 조화로 여법함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의식이 불자의 장끼가 아닌 대중과 더불어 발심을 일으켜야 한다면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의 정서와 시대의 변화에 끊임 없이 연구개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압니다. 목탁 요령과 녹음기 들고 그냥 오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 맞는 도반과 함께 공부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먼저오신 대중의 다수 의견에 의하여 출가 재가불자 회원을 항시 모집합니다 (회원교육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교육원장 혜명 지운 지도법사 석원범
■ 경부선 영천IC →첫 번째 신호 좌회전→ 직진 막다른 길에서 좌회전 5분거리
慈 光 園 (한방병원 옛 초등학교)
054)336-4475~6 / 010)4579-0408
대경범음범패연구보존회원 합장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해광 하순천 지음/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372쪽/15,000원
해광 하순천 관법명인이 밝히는 하늘도의 기도와 수도의 과정, 사후세계의 비밀, 전생과 현생, 신의 세계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 책으로 출간되다!
1부 신도神道를 닦다
하늘의 도를 만나 저자 자신이 직접 체험하게 된 세계, 저자가 하늘도의 세계에 입문해 성장해가는 과정, 그 과정중 증거인이 되어 증거하게 된 하늘 일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
2부 죽어서 가는 길
사후세계의 비밀, 사람의 사후세계의 세 가지 모습
당신의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3부 전생과 현생
저자 자신이 직접 본 자신의 전생, 그리고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
자신을 뒤덮은 업과 살과 가피에 대한 진정한 통찰과 깨달음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해답들이 저자 자신의 체험, 기도, 수도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문의 : 도서출판 대도대한 전화 : 02)575-5162 www.ddblog.co.kr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행 자 모 집
복(福)중에서 발심공덕이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출가하여 사홍서원의 원력을 세우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과 미주포교에 원력을 가진 발심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1) 무량사 행자 자격
• 연령 18세 이상 50세 이하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조계종 종법에 의거 승려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연락 이메일 : muryangsa@empal.com
※ 무량사로 출가한 행자들은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하와이무량사 주지 백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귀의 삼보하옵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고해라고 불리우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가없는 중생들을 위해 산승이 기도와 제를 올리고 법시술로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고통을 부른다. 번뇌와 업과 고통의 이 세가지는 같이 굴러서 한이없고 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 한다.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고통속에서 사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에 재수가 안들고 이사매매가 막혀 궁금하신 분
◆ 평생 제복과 관운이 없어 본인의 관상과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들 오셔서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생들의 앞일을 스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 련 사 성진 합장 031)673-1087
남 · 여 행자승 모집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부산 ● 위치:포천 ● 위치:대전
● 법당,요사:150평 ● 법당:35평 ● 요사:90평 ● 법당:30평
● 부지:135평 (즉시법회가능) ● 부지:560평 (전세나 월세) ● 요사:60평
● 가액:15억 ● 가액:절충 ● 부지:700평
● 가액:10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제주도 안내
● 위치: 사찰터 최적 (신엄리) 바다경관 으뜸
● 농가주택 (개인도량 및 포교처)
011-9773-4414
064)711-14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원주시립박물관 옆
● 2층건물 중 2층. 40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258-1147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남덕위산 자락
● 부지 : 1,630평
● 가옥 : 황토기와집 2동
● 특징 : 집뒤에 솔숲과 맑은 개울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 4억 5천
010-9304-2322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위치:서울산아래 ● 위치:경기
● 부지:100평 ● 부지:100평
● 법당:12평 ● 법당:33평
● 요사:24평 ● 요사:50평
● 가액:5억5천만원 ● 가액:1억9천만원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자그마한 암자 인수하실 분
● 위치:정릉 입구 우체국 대우프르지오 뒤 성원아파트 정문 근처
● 대지,건물등기 확실 15개 버스노선 및 경전철 예정지 인접
● 서울시 공원 조성 부지와 근접함
● 은행융자 4천 4백만원 있음
● 일본 장기 연구관계로 착실한 분에게 양도 하고자함 오는 4월6일 49재시 신도님 모두에게 인사 소개 하겠음
주지:010-8368-3958
자택:02)914-3958
일본연락처: 001-8129-842-6833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방 4칸(스님방, 친견실)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각 시설일체 갖추어져 있음,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1500만원
016-528-3736

포교당안내
● 위치: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임법당 포교원 방2 욕실 도시가스 조그만 거실겸주방, 부처님 4불
●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비구니 스님이 하시는데 무속인도 관계없음
● 꼭하실분 전화요망
010-9913-0031
031)314-0031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매 6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사찰부지: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전체평수 4390평
● 대지:종교시설부지2000평 허가진행중, 사찰건립계획도 있음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화장실 10평 겸에 주택계획도 있음
● 현재토목설계 1차 500평 허가 득, 2007년 3월 2차 500평 허가예정(현재진행중)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주목군락형성
● 주택1동, 창고1동, 촌집(산입구 오른쪽에 있음) 전원주택(텃밭가능) 목조기와,주거가능 -별도거래 대지 약100평, 건평 약15평, 창고 약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 지하수(청정1급수) 청정한 수행자분이 부처님 전에 기도 후 점지된 땅 ● 가액 : 3억 조정가능
011-741-3415, 010-6283-9792

사찰(암자) 안내
● 위치:밀양시 무안면 표충비각에서 (땁흐르는 비석) 5분거리 국도변에 위치함
● 대지: 약 200평, 주변이용토지 180평정도
● 요사채적조 슬라브단층 60평태양열 완비
● 법당:20평(아미타불 삼존불)
● 가액: 1억9천8백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55)356-8487
010-5883-5005

대찰 최적가람지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장천면
● 입야: 3만 8천평
● 대구에서 30분거리 구미 시내에서 20분거리
● 부처님께 보시하는 심정으로 이 산을 내놓습니다
011-501-1935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중구 내동 신포시장 부근
● 삼층건물중에 3층, 30평, 전세만 6,500만원 월세 없음.
● 법당1, 방3, 부엌1, 화장실, 법당시설 양도
017-325-7745
010-7121-0408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사 찰 안 내
● 위치:삼랑진역 10분거리
● 종교용지 1540평
● 논 550평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토목공사 완료
● 정남향 좌우청용백호양호
● 매매가 3억원
〈부 지〉
● 위치:부산 일광 바닷가
● 평수:1000평
● 가액:평당75만원
● 달음산 자락
● 1000평 평당35만원
● 정남향 양지바른곳
● 바다전망이 좋은터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량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 산 부 동 산 직011)560-8522 051)863-6661

포교원안내
● 위치: 창원시내 상가건물 4층중 3층
● 평수: 9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4877-5900

포교당안내
● 위치: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부근
● 건물 2층 3층 사용 (방3,주방)
● 평수:2층 34평 (법당, 접견실)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1-888-0130

사 찰 안 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21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포교원안내
● 위치:인천부평역 10분거리
● 평수:4층건물중 3층(35평), 옥상사용가능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1500만원(절충가능)
● 삼존불,신중,지장,산신,후불탱화
● 집기일체, 영험도량, 즉시법회가능 인연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0-8676-6921

토굴안내
● 위치: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목조 23평, 임법당
● 부지 405평
● 가액:1억 5천만원
010-4202-3699
041)753-8137

토굴안내
● 위치 : 전북남원시 주생면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190평 (90평 텃밭사용)
● 방4개,후원,화장실,창고
● 가액 : 3천 5백만원 (절충가능)
010-5631-8439
010-6401-4939

스님 노후 토굴겸 도심사찰
●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미터 코너 절
● 대지 110평 건평120평 1층점포 4개
● 산림2세대 포함 6개에서 매월 월세 150만원 이상나옴 2층 법당 요사공간 큰방2개 스님방 1개
● 가액:3억 6천 4백만원
● 준비금 1억6천 7백만원이며 개인소유권이전완료 11년된 사찰 완벽함
010-6411-2882(일요일 답사)

포교당안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12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5층:스님실 30평(방2)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연락처011-820-4617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충주호 월악산
● 대지 : 153평 건평 33평(원룸4개)
● 삼불, 삼탱, 불구완비, 수석돌담
● 토굴,포교,기도 최적지
● 가액: 4천 3백 선 답사 후 결정
043)642-6876
010-4601-2837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 대지286평, 법당13평, 요사채24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33)762-4244

사 찰 안 내
● 위치: 남원 지리산 휴양림역
● 평수:2,000평, 대웅전, 산신각, 독성각, 별채, 요사채 50평, 심야전기
● 주위에 오래된(200년)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있는 경관수려한 곳
● 가액: 2억 5천만원
011-411-0503
063)625-999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500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송현동 월촌역 부근
● 평수 : 53평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모든 시설 및 집기일체 완비 시설 A급
010-3773-4367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아산뒤 KTX 고속전철 15분거리
● 대지:3,700평 ● 법당, 요사채:150평
● 큰석축, 조경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천하의 절경, 명당자리, 큰바위가 많음
● 가액:23억
※인연이 되시는 분 전화 주시면 상의하에 양도해드리겠습니다.
011-850-017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정릉
● 부지 : 300여평 법당20평, 요사50평
● 가액 : 2억7천만원 노송이 우거진 경치좋은곳
02)909-0215
010-8501-6946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망미동 부산은행 뒤
● 4층건물 2층 아미타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2천만원 월20만원 시설비 : 보시하는마음으로 저렴하게 드립니다
※현재 비구니스님 운영중, 깨끗한 관리
016-807-7286

포교당 인수하실분
(스님 건강상으로 내 놓음)
● 위치:서울역 부근
● 법당 약 20평 3층, 요사채 약 8평 4층
● 아미타, 관음, 대세지, 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철학을 하신분이면 더 좋음
● 보증금 500만원 월제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750-542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에서 15분거리
● 대지:42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방5개, 주차시설완비
● 가액:1억 1천 5백만원 (절충가능)
055)973-4943
011-737-0736

포교당및 신당 인수할 분
● 위치:경남 양산 상가 2층
● 평수:80평
● 전세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 차후절충 몸만 오시면 됩니다
055)365-6040
011-9510-604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나주 (시내 인접) 도로주변
● 대지 3000평
● 법당, 요사채, 산신각, 토굴(방6)
017-624-9989
010-8223-9989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광주에서 30분(전남 화순)
● 배산임수, 연화도수형국 법당터를 중심으로 양쪽 계곡 흐르고 앞쪽에 큰 호수 있음
● 조립식 임법당, 차고, 창고, 삼존불 무료보시 905평(토목공사완료)
● 가액 : 1억 2천만원(가격절충가능)
010-5255-0565

암 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명륜2동
● 법당(단청) 30평
● 2층 요사채 20평 대지 71평
● 지하철 5분거리, 버스 1분거리, 주차가능
051)555-8516
010-8550-8440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동천
● 대지 약70평, 임법당,
● 가액 1,000만원 (집기 일체)
011-653-7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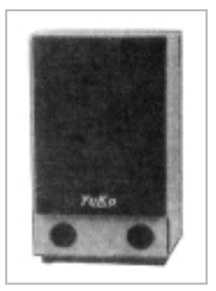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익산시 면소재지
● 법당: 목조 25평
요사: 30평
● 특징: 약사여래석불 종교부지300평, 시유지600평
● 양도가: 1억 6천
010-8770-498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 포교당양도 (관악구청 도로변에 있음)
● 평수:40평 5층건물중 2층
● 보증금 5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000만원(조정가능)
010-8652-4563
010-8675-5858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삼남면
● 평수 : 60평(3층건물중 2층)
● 법당, 방3, 화장실, 욕실
●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보살 소불, 108불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시설비 : 집기일체 2천만원
010-6527-0305

포교당 안내
● 위치: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행신역앞) 8층건물의 4층
● 실평수 40평, 큰방1, 작은방1,주방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시설비 권리금 포함 1천 5백만원
016-390-2145

사찰(급)안내
● 경남 창녕군 유어면 목조한옥기와 촌집 (기둥은 둥글고 법당은 아직 꾸미지 않았음)
● 대지:198평
● 본집, 마당, 기타 부속건물
● 가액:3천 5백만원
011-9517-413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전체 770평
● 법당 25평, 요사채 2채, 방4개, 창고 35평
● 별장용(명당),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 적당한 곳 관상용 양어장 있음
● 가액:2억원
010-8564-0302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 대지: 420평
● 법당, 요사채, 산신각, 토굴(방6)
● 가액: 1억 2천만원
010-5255-056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근교
● 산밑 아담한 기도처
※최상급 · 비구니 스님 적합
● 대지 50평, 법당 15평, 큰방 2, 작은방 1, 주방겸 방 1
● 주불 아미타불 양대보살, 지장불, 산신각, 집기일체
● 가액 : 6천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2)2603-2992
011-340-5963
017-202-875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예천읍
● 면적 : 약100평(320평방미터)
● 건물 : 법당(보광전), 산신각, 용왕당, 주지실, 요사채(1칸)
● 법당 : 석가모니 부처님 (5자청동불), 아미타삼존불, 지장보살
● 특징 : 군에서 직선거리 150m 전방 산자락,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임
● 가액 : 2억원
054)655-6056
011-9308-4404

사찰(임법당)안내
● 위치:충남 아산시 (온양 터미널 인근)
● 대지60평, 건평25평 (법당, 방2, 삼존불, 시설완비)
● 가액 : 1억 5백만원 (전세 1,700포함)
041)533-0853
011-669-925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기동 (구 반야월역 앞)
● 대지 80평, 법당 8평 (삼존불)
● 건물:스님방, 공양간, 요사채 (촌집 개조 수리 완벽)
● 몸만 들어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시설비 1600만원
년 사글세 100만원
053)962-7362
011-506-3899



맑은 날 언제 오려나!



황사 피하고 건강한 봄 맞기

기상청이 올해 '최악의 황사(黃砂)'를 예고했다. 황사는 몽골이나 중국의 사막지대, 황하강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의해 떠다니는 현상을 말한다. 이 황토 속에는 몸에 해로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규소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게 하므로 주의해야한다. 소방방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황사 대비 요령'을 통해 황사를 피해 건강하게 봄을 나는 법을 알아본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불임클리닉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참가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1회 시술시 150만원을 지원하며 1인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031)961-7950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리더십 교육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4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3기 여성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

'조화로운 여성, 지혜로운 여성, 보살피는 여성'을 주제로 서울 조계사 교육관 2층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MBTI 성격검사를 바탕으로 나와 남을 이해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기르는 한편, 불교의 가르침에 근거한 명상법 등도 배워본다. 김일명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과), 김남선 참교육상담소장, 진민자 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등이

▷ 기상뉴스에 귀 기울이세요

황사는 발생과 오염 정도에 따라 '정보' '주의보' '경보'라는 특보가 내려진다. 기상청에서는 방송 뉴스나 황사센터 홈페이지(http://yellow.metri.re.kr)를 통해 특보를 예고하고 있다. 전화(국번 없이 131)로도 황사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다.

황사정보는 먼지 농도가 300㎍/㎥ 이상이고, 2시간 넘게 지속된다고 예상될 때 발령된다.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바깥 활동을 삼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운동이나 실외학습도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단계다.

황사주의보는 먼지 농도가 500㎍/㎥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며, 일반인들도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황사경보는 먼지 농도가 100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발령되며 노약자의 외출이 금지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단축이 권고되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실외운동경기도 중지나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

▷ 가정에서는 이렇게

-외출 시 긴 소매 옷·마스크 착용

황사가 심한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피하고 운동 등의 바깥 활동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한다. 마스크는 황사 속에 섞인 중금속을 걸러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일반 면 마스크 대신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방진마스크도 '황사마스크'란 이름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마스크는 1회용은 한 번 사용 후 버리고,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것일 경우 외출 후 반드시 빨아서 사용해야 한다. 긴 소매 의복을 입고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황사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콘텍트렌즈를 쓰는 사람이라면 황사가 발생하는 기간만이라도 안경을 써야 눈의 건조와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외출 후 손발 씻고 물 많이 마셔야

황사가 심할 때 외출을 하고 돌아왔다면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입 안을 소금물로 헹구면 유해물질을 씻어내고 살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가습기 등을 이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면 오염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다. 비타민 A가 함유된 당근, 시금치, 상추나 모과차나 오미자차, 녹차 등이 오염물질 배출에 도움이 된다.

> 먼지 농도 300㎍/㎥ 이상
>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발령
> 손발 씻어야 2차 오염 방지
> 과일 등은 소금으로 세척

-과일·야채 등 충분히 씻어서 섭취

황사에 노출된 과일이나 야채는 베이킹소다나 소금 등 인체에 해가 없는 성분으로 충분히 세척한 후 섭취한다. 또한 길거리에서 만들어 파는 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집에서 요리를 하기 전에는 손을 꼭 씻는다.

-집안 청소는 자주, 환기도 시켜야

황사로 인해 가구나 섬유에 각종 세균이 붙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집안청소와 세탁을 자주 한다.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단속한다. 그러나 황사를 막느라 환기를 전혀 시키지 않으면 공기가 탁해지고 건조해진다. 황사가 심하지 않을 때 잠깐씩 환기를 시키고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 놓아 습도 유지에 신경을 쓴다.

-차량 점검, 차체 부식 방지

황사가 잦은 기간에는 가급적 지하나 실내에 주차하고 지상에서는 덮개를 씌우는 것이 좋다. 황사가 심할 때 내리는 비는 산성비로 차체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차가 황사비를 직접 맞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차량 앞 유리가 황사로 오염됐을 경우는 대강 먼지를 제거한 후 와이퍼를 작동하는 것이 좋다.

-안구출혈, 피부 가려움…전문의와 상의하세요

황사에 장시간 노출된 후 기침이나 안구출혈, 피부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의한다. 황사는 기도를 자극해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래 등을 유발하며, 코와 기관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몸 안으로 쉽게 침입해 후두염이나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호흡기병에 걸리게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인류 문화속의 茶

29. 홍차의 제국

동양에서 가져온 신비한 차와 설탕은 당시 유럽인의 기호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처음부터 영국인들이 차만을 선호한 것은 아니다. 코코아 역시 귀족 부인들이 침대에서 마시는 아침 음료였으나 커피나 차에 비해 가격이 2배나 비쌌다. 1727년 자메이카를 강타한 허리케인은 코코아 농장을 전멸시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했다. 네덜란드와의 커피 수출 경쟁에서 밀려 있던 영국은 자메이카에 커피를 심어 커피를 본격적으로 재배하지만 이미 18세기 중엽 커피보다는 차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됐다.

초기에 수입된 영국의 차는 주로 녹차였지만 18세기 말경 홍차를 선호하게 되면서 홍차 수입이 증가했다. 상인들은 찻잎을 크기와 색, 향기, 맛에 따라 분류했다. 녹차는 임페리얼(Imperial,大株茶) 하이슨(Hyson,熙春茶) 싱글로(Singlo, 松蘿茶) 등이 있었다. 홍차는 피코우(Pekoe, 白毫) 수총(Souchon, 小種) 콩고우(Congou, 工夫) 보우히(Bohea, 武夷茶)로 구별됐는데, 이 중 가장 품질이 좋고 비싼 것은 흰 솜털의 빛이 나는 피코우였고 일반적으로 많이 마시는 차는 가격이 저렴한 보우히였다. 영국인들은 뜨거운 홍차에 우유와 설탕을 첨가해 마셨다. 설탕은 당시 부유한 귀족들이나 맛 볼 수 있는 진귀한 것이었다.

한편 영국은 발바도스 섬을 설탕 식민지로 개발해 설탕 무역에서 많은 이윤을 축적하고 자본의 토대를 마련했다. 홍차와 설탕은 보완재 역할을 하며 대중 상품이 되어 영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계기로 작용하게 됐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차와 설탕의 소비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홍차와 설탕은 중상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문화로 막대한 부를 가져왔으며 '홍차 제국주의'를 만든다.

홍차의 대명사가 된 얼그레이, 다르질링, 아삼, 실론티 등은 당시 식민지에서 재배된 홍차들이다. 얼그레이는 영국수상 얼그레이(1764~1845) 백작이 중국에 외교 사절로 파견되었을 때 차 제조법을 알아 영국의 회사에 알려 오늘까지 유명한 홍차가 되었다. 다르질링은 인도의 북동쪽 히말라야 산맥 다르질링이라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홍차로 이곳에는 80여개의 다원이 있다. 이곳에서 자라는 차나무는 다양한 종(種)으로 각기 다른 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다. 봄에는 주로 신선하고 은은한 맛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차가 생산되고, 여름에는 과일 향과 맛이 나는 찻물 색이 진한 차가 생산 된다. 가을 차는 향이 약하지만 진한 맛의 차가 생산된다.

홍차와 설탕 대중화 영국 경제에 큰 보탬
립턴은 실론 섬에서 茶 재배 성공 부자 돼



실론에서 립턴 차 상자를 싣고 있다.(1900년경)

실론 섬 역시 1802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당시는 커피 재배가 성행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잎 마름 전염병으로 커피나무가 죽게 되어 이곳에 차나무를 심게 된다. 제임스 테일러의 노력으로 차나무 재배가 성공을 거두게 되고 실론 섬은 커피에서 차의 섬으로 바뀌게 된다. 많은 자본가들이 그곳에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토머스 립턴은 실론 섬의 땅을 싼 가격에 구입해 차나무 재배를 시작한다. 뛰어난 광고 아이디어로 이미 백만장자가 된 립턴은 '산지에서 식탁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차를 팔아 억만장자가 됐고 귀족의 작위를 받게 된다. 이처럼 영국의 차 식민지 정책으로 홍차의 대량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영국은 '홍차의 제국'이 되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경추] 편두통, 불면증, 신경과민, 만성피로, 뒤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심장, 폐, 간장, 췌장, 신장, 비장, 위장질환, 소장

요추] 변비, 요통, 관절통,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선추] 좌골신경통, 전립선, 생식기계통

미추] 직장, 치질, 꼬리뼈의 통증

특전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7년 3월 27일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4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4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신경통·오십견·디스크 등의 환자와 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7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

가. 기초과정
- 송 주 : 도량석 ,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 사성례 , 칠정례 , 오분향례 ,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 각단불공

나. 전문과정
- 상주권공 : 시련,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104위) , 상단권공, 중단권공,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회향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요령, 목탁(전통의식타법) ※광쇠 ,호적
- 특 강 : 괘불이운,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재의식 등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2007년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정해년 추천선물용품 기획전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불교문화상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선물용품

멋스러운 수공예 자사통에 최상의 보이차를 담았습니다



궁정보이산차(黃) – (120g)
80,000원

궁정 보이차는 1급 찻잎만을
엄선해 만든 특급 보이차로
운남 하관에서 만든 차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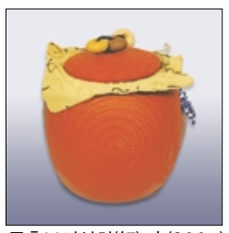


궁정보이산차(紅) – (120g)
80,000원

동흥보이산차는 진년 17년의 야생교목산차로, 박하향과 함께 탕색맛이 일품인 고급차 입니다



동흥보이산차(黃)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紅)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小(200g)
12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大(500g)
220,000원

차통은 자사호가 나오는 중국의 이싱(宜興)에서 작가에게 주문 · 제작한 작품입니다. 차통의 무늬는 하나하나 수작업한 수공예품입니다. 자사차통은 돌 가루를 분쇄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그 입자가 매우 미세해 통풍이 매우 잘되므로 차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차를 다 드신 후 다른 차 보관 통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소중한분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 수입원 : ㈜홍다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이제 병풍도 고급 百福圖 명품으로 확 바꾸자!

가정에 하나쯤은 보배로 정통병풍이 있어야 名家집안 소리를 듣습니다.

福字 하나만 받아도 복스럽다는 행운의 복자 百福圖는 福福子를 中國 銀(은)나라 漢字 殷墟文字(언어문자) 원형 甲骨文(갑골문)체로 100개의 복자를 각기 다른 형체로 글자 하나 하나에 혼을 실어 금분으로 써서 열폭의 병풍에 담아 예술로 형상화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작입니다.



2007 丁亥年 돼지해에 삼불사 금강불교문화 연구원장 서예작가 廷潭스님께서 불자님들의 가정에 富貴 번영과 幸福을 祈願하는 마음으로 정성들여 만들어서 50작품 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흑지 위에 금분으로 쓰여진 百福字는 보는 사람과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며 그 신비함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첫 작품은 으뜸의 소장가치를 지니는 바, 첫번째 주문하시는 분께는 행운의 증1호로 바로 보급됩니다.

廷潭스님 서예작가 약력
· 2002년 대한민국서화대전(예술의 전당) 최우수상(반야심경)
· 한중수교 12주년 중국산동성 박물관 전시 대상(금강경)
· 2003년 출발 백인전 반야심경, 금강경, 한시, 백복도 전 출품 북경공예미술대학 초대 한중서화 교류전 대상
· 2002년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 하와이 주립대학 초청서예전 미국 하와이 와이키키 아트 갤러리 대상

집안에 백복도 병풍을 소장해 두신다면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고 千壽(천수)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丁亥年 돼지해에 소중한 분들께 행운의 백복도 병풍으로 최고의 값진 선물을 안겨 드리세요.

부귀, 행복, 희망, 기쁨, 장수 5배의 소장가치가 있습니다.

특별 보급가 : ~~3,900,000원~~ → 1,900,000원
10폭 병풍 (폭 넓이 : 44cm, 한폭세로 높이 : 5자 2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2004-8215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 단 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 품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대행스님

제 나무에 제 과실이 열려서 무르익게 해야!

여러분과 같이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또 오늘 새삼스럽게 이렇게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한 자리를 하게 됐군요. 주인공(主人空)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정관념과 고정 행, 고정된 말이 없고 모든 것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空)이라고 했던 겁니다. 색(色)이면서도 공이고, 공이면서도 이렇게 보이는 색이 역력하다고 하는 뜻에서 바로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라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간편하게 공의 뜻을 그대로, 우리는 주인공에서 고정됨이 없는 뜻을 표현할 때 현대에 비교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죠.

지금 여러분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전소가 있다면 그 발전소에서 용량대로 용도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전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자기 용량대로 자기의 용도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이거를 비교해 보십시오. 수천수만 가지로 용도는 많습니다. 전력의 용도도 자기가 쓸 만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덴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덴 적게 쓰고, 그릇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전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용도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 행도 없다. 자기가 그릇대로 용도대로 쓰는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잠시도 쉬는 사이가 없고, 잠을 자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쉬지 않고, 일어나도 쉬지 않고, 앉아도 쉬지 않는 거는 바로 숨 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근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가발전소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 자가발전소는 원자력의 자가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자력의 자가발전소는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등이 합쳐서 나한테 있단 말입니다, 모두 각자 여러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빛이 나가려면 빛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려면 능력이 나가고, 모든 점에서 광선 또는 자석이, 모든 것에 의해서 밀치려면 밀치고 당기려면 당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모든 용량이 거기에 규합돼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광대무변한 보배의 힘을 가지고도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 무명체를 가지고서 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 무명체라고 했을까? 금(金)이 빛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광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명체라고 한 것이죠. 실상이 되지 못하고 중생이라고 그랬죠. 중생은 중생이로되 금이 빛나듯이 빛이 난다면 으레 남도 충전시켜 줄 수도 있고, 나도 언제나 용량에 따라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성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성(自性)의 자가발전소는 꺼진다거나 켜진다거나 하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립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걸리고 가시는데 예전에 이런 점이 있죠. 무명천(無明天)이 있다면 환상천(幻相天)이 있고, 환상천이 있다면 삼중천(三重天)이 있고, 삼중천이 있다면 바로 인천(人天)이 있고, 인천이 있다면 도리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다면 도솔천(兜率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이름은 각각 일곱 가지의 이름이지마는 천(天), 천 했습니다.

즉 그것을 알고 보면 동그라미 일곱 개를 그려놓고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도리천이라고 한 놈이나, 환상천이라고 한 놈이나 다 한 놈이 하지마는 그래도 물맛은 물맛대로 나는 것이고, 산맛은 산맛대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맛은 들맛대로 나고,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맛없는 건 맛없는 거라 이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은 천이로되 둥근 천이며, 한마음이며 근본입니다, 전체가.

그러나 '사람은 고정관념으로써 있지 않고, 고정 행이 없으니 맛도 천 가지 만 가지 맛이 나네' 하는 소립니다. 만 가지 맛이 나! 그럼 아까 전력을 용도에 따라서 만 가지를 쓴다고 했죠. 그와 같이 자기 그릇대로의 씀씀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정집에서는 전기를 얼마 쓰고, 또 공장에서는 모터를 돌려야 될 테니까 얼마를 쓰고, 용량에 따라 아주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쓸 줄을 모른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 무명천에서 색(色)을 보고 너무 취해. 사랑, 애정, 욕심, 착, 이건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끄달리는 거야, 끄달려. 그러니 그걸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든 것은 포함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유할 때 어떻게 놓습니까? '아니, 사람이 사는데 놓고 어떻게 삽니까? 사랑도 할 수 없고, 돈도 가질 수 없고 다 버리게 되면 뭘 가지고 삽니까?' 이러거든요.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랬나, 돈을 갖지 말랬나요? 사람이 누구나가 다 육신이 자기 실참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기 주인 자체가 바로 실참이요,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용량을 아주 맛있게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가정에서나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요거를 했으면 요거 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놓고 또 딴 걸 합니다. 딴 거 할 때, 요거 용량의 기계를 썼으면 그 스위치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꺼야 합니다. 꺼집니다, 쉬니까! 이거를 또 돌립니다. 이거를 돌려서 쓰고 저거를 돌려서 쓸 때, 안방에서 불을 켜고 쓸 때에 거기 사람이 있지 않으면 불을 끕니다. 끄고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또 불을 켜고서 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은 고정관념으로써 있지 않고
고정 행이 없으니
맛도 천 가지 만 가지 맛이 나네!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놓고 가는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 하고는 돌아서선 딴 거 하면서도, 그거는 놓고 벌써 딴 거 하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난 이상스러워요. 그것을 알게 돼야 우리가 인천도 환상천에 속해 있지 않고, 환상천도 인천에 속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사방이 탁 터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놓고 가야 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아까 씀씀이를 쓴다고 했는데 거기는 얼마든지 내 그릇대로 용량대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를 지금 쓰고 있듯이. 자기 살림의 차원대로, 생활수준대로 씀씀이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탑돌이 하는 거와 같습니다.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옛날 얘기 삼아,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봅니다. 현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도 현실이고 과거도 현실이니까. 삼중천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몸으로 비교해본다면 바로 그것이 예전에 '과거심 불가득(過去心不可得), 미래심 불가득(未來心不可得), 현재심 불가득(現在心不可得) 어떠한 떡을 자시렵니까?' 한 그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알아야, 어디 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뭐가 어떻게 터지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가게끔 나와 더불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참, 공부하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돕니다, 감사해서요.

옛날에 아주 불여우같이 만날 남을 해롭게만 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부처님 법을 배워서 선신으로서 아주 충만한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더랍니다. 한 사람은 아주 악으로다 공부를 했고, 한 사람은 선으로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 세상에 또다시 나오게 됐는데 아, 그거는 안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빠져나갔거든요. 악으로다 쓰는 사람 말이에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그런 속담 있죠. '한 도둑 열 놈이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재주가 좋아서 빠져나가서 이 세상에 몸을 받아 났거든요.

그런데 같이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부잣집에, 정말 여우로서 행동을 아주 나쁘게만 하는 그 친구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부잣집으로 태어나게 됐고 하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자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이 사람은 모릅니다. 또 한 사람도 자기가 전자에 그렇게 잘했다는 것을 또 모릅니다. 그랬는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하니까 하루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귀한 때였지, 이렇게 많은 시절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하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딴 나라의 신하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쪽에서도 사냥을 나왔는데 이쪽 왕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신하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서로 싸움이 났는데 이쪽 착한 왕이 죽게 됐더랍니다.

그런데 그 착한 여자가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아하! 저 사람은 아주 착하고 이 세상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왕의 칼을 쓱 뽑아서는 그냥 친 겁니다. 그대로 다 무찌르고 다 쫓아버린 겁니다. 그 여자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손도 말이 아니고 얼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니만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로 맞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목욕을 시키고 해서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쁜 여자는, 이 왕을 죽이려고 하던 상대 나라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 두 친구,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었던 그 친구가, 다시 여자로 태어나서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립이 졌습니다. 자기네들도 모르게 대립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은 또 악하게 그렇게 하고, 선하게 살던 사람은 선하게 남을 구제하고 그러는데 나라가 위태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의 악한 나라의 왕비는 자꾸 임금을 악하게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쪽 왕비는 선하게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악한 그쪽에서 백지 한 장을 활에다 매어서 보냈단 말입니다. 끌러 보니깐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신하에게 다 보여도 이 글자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느 때 쳐들어온다는 건지, 안 쳐들어온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걱정을 하면서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비한테 걱정스러운 듯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지를 제게 좀 보여주셨

☞22면으로 계속

석불,목불,동불,소불, 전문 제작 신라불교 공예사


천수천왕목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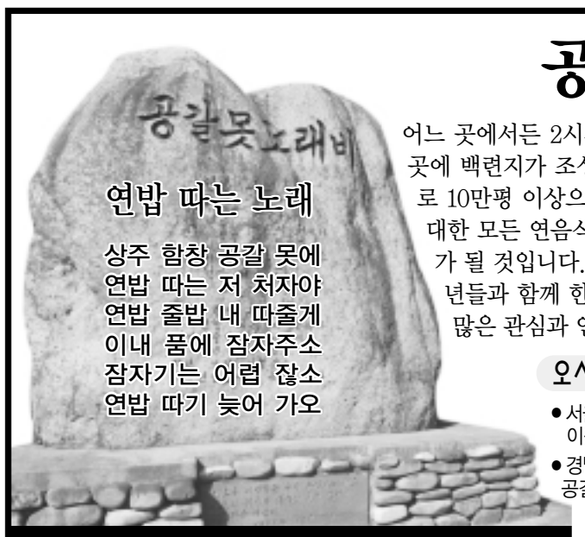

금강역사석조물

신라 불교 석물의 대표작 다보탑
시공장소: 대구 동구 도동 재현사



신라인의 장인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 011-811-7771 · 016-9211-3330 / 팩스 : 053)981-5558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18 번지

공갈 못 백련지 조성



어느 곳에서든 2시간~3시간대면 삼백의 고장 상주에 도착할 수 이곳에 백련지가 조성. 총 10ha(3만평)규모로 조성이 되며, 연차적으로 10만평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백련이 피어나면 연에 대한 모든 연음식 연잎차 등 백련의 매력에 매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호암사 아동시설 호암룸비니에서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한 백련(연잎차)와 백련분말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향차의 체험에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방법
- 서울에서 중부고속도이용 여주분기점에서 여주 구미간 고속도로 이용하여 함창 점촌 IC에서 내리면 5분거리
- 경남 쪽에선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이용 북상주에서 내리면 공갈못 공검지에 도착 호암백련지를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연락처 : 054)541-7862~3

부생육기(浮生六記)의 연향 차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워 보여주는 "연꽃 이야기"가 있다.
지혜로운 아내의 연꽃처럼 고운 마음을 담은, 청나라 건륭(乾隆)때 심복(沈復)이란 사람의 자서전 부생육기(浮生六記)라는 책이 있다. 심복이 부생육기를 쓴 것은 그의 아내 운(芸)에 대한 사랑의 추억 때문이다.
심복은 아침마다 아내가 내주는 차의 향이, 독특하고 은은했다. 같은 차로 수십 번 자신이 우려보아도 그 향을 따를 수 없었다. 가만히 아내의 차 끓이는 방법을 눈여겨보았다. 연못에 피는 수련은 저녁에 꽃 심을 오므렸다가 아침이면 활짝 핀다. 아내는 저녁나절 꽃송이가 오므릴 때비단 주머니 속에 차를 넣고 꽃 심에 놓았다. 차를 품은 수련은 밤새 별빛과 달빛 이슬을 맞으며 차의 향을 촉촉한 수련 향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침 일찍 꽃봉오리가 입을 벌릴 때 비단 주머니를 꺼내 이 차로 차를 달였다. 말단 관리였던 남편 수입으로 향기로운 고급차를끓일 수 없어 생각해낸 운(芸)의 지혜다. 이 같은 멋을 운 이가 떠난 후에 알게 된 심복은 회한의 눈물로 아내와의 추억을 그리고 있다. 임어당 은 운은 중국문학에 있어 가장 사랑스런 여인이었으며 뛰어난 재인으로 손꼽는다고 했다.
부생육기에 나오는 수련은 연꽃을 말함입니다. 수련은 물에 떠서 꽃을 피우기에 꽃 봉우리가 닫히면 반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련 꽃 속에 차를 넣었다가는 더러운 물에 젖을 수 있습니다. 연꽃차라 하여 연꽃 속에 녹차를 넣고 연꽃을 잘라 그 위에 덥힌 물을 부어 음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음다 행위라 할 것입니다.
위 글에도 있다시피 연 향이 너무 진 하면 그것이 연차 인지 녹차 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차의 근본은 녹차 입니다. 녹차에 약간의 연향을 가미 하여 향긋함을 맛보기 위함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를 들며 다도를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생육기에 나오는 글은 연향차입니다. 연꽃 차는 연꽃만을 갖고 끓인 차를 말함입니다.
연꽃 한 송이 따서 덥힌 물을 부어 차를 마신들 그게 무슨 잘못 이겠습니까만은 모름지기 차란 서양의 커피 마시는 듯해서 는 안 됩니다. 차엔 풍류가 있고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여 도라 붙이기도 합니다. 도란 예의범절을 말함입니다. 연꽃 한 송이면 족히 10여명이 차를 마시고도 남습니다. 왁자지껄 소란스럽게 마시는 차는 도가 아닙니다. 차엔 제다 인이 있고 음 다 인이 있습니다.
만드는 이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음용하는 이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자 하여 음용 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철학이 없으면, 결코 다도인 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인 자체가 바로 실참!

☞21면에서 계속

으면 어떻겠습니까?" 했습니다. 왕비는 아주 겸손하고 뭐든지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알지만 그러한 내색도 없이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영 내비치지도 않게끔 자꾸 다짐을 하고요. 사람이 값싼 데다 쓰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신하더러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부인에게 보였죠. 그 임금은 부인의 말을 100%로 믿고 갑니다, 얼마나 착한지. 이 부인이 참, 보살이죠. 이거는 정말 누구 말마따나 관세음보살이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보더니 "아무개야, 물 한 그릇 떠 오너라." 그러거든요. 물 한 그릇을 넓은 데다 떠 오니까 이 물에다가 이 종이를 넣고 "아주 정성스런 대왕의 피 한 방울이 여기 들어가야만 이 글씨는 보입니다." 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피를 정말 넣어서 넣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성입니다. 내 마음으로 진짜로 믿고 이것을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의 임금이라면 생명을 걸고 임금노릇을 해야 돼요. 몸을 사리면 임금노릇을 못하죠.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손수 오른손 손날 부근을 잘랐습니다. 조금 해가지고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그것이 퍼지면서 그 백지, 물속에 넣은 백지 속에서 글씨가 나오되 '이 글자를 못 읽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쳐서 삼키겠노라.' 하고 써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백지에다가 아무 소리 없이 그 부인이 '무(無)' 자 하나 썼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백지예요. '무(無)' 해서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 그쪽에서는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글씨를 써서 보내도 문제인데 글씨를 쓰지 않았어도 글씨를 탁탁 알아내고 이걸 답을 했으니, 거긴 의인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칠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여우 아니라 불여우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도중에, 그 악한 도술로써 임금을 죽였단 말입니다. 죽인 게 지금으로 치면 안락사, 즉 도술로다가 죽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으면 삼중천이나 저런 데 가서 이름이 다 통하는데, 환상천이다 하는 거는, 아직 죽을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은 그런 데 들어가서 이름이 박히지 않고 그냥 거기 몰켜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긴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깐,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신하들더러 이 앞뒤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해놓고 자기는 "내가 이 자리에서 몸을 움죽거리지 않고 죽은 거같이 보일 테니까 모두가 장사를 지내자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장사 지내지 말아다오." 그러고선 흰백을, 남편의 흰백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는 이런 데는 무명천이라고 하는데 환상천을 거쳐서, 인천을 거쳐서, 삼중천을 거쳐서 보니까 거기 이름이 들어와 있질 않아. 그래서 물었더니 거기에서 일러주었습니다.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거기 가보면 알 수 있다고요. 즉 아까 얘기한 환상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천에 가서 모든 것을 조사한 끝에 흰백을 찾았습니다. 모든 부처들이 사방천에서도 도와주고 참 도리천에서 도솔천에서 한마음이 돼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흰백을 찾아서 가지고 나오는데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아하, 내가 이렇게 갔다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환상천도 무(無)고 이 무명천도 무다.' 이거야. '모두가 무로 돌아가서 내가 직접 이 흰백을 가져오는 것이고, 조끄마한 좁쌀 알갱이 하나만한 그 원동력이 이 세상을 싸고도 남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생도 알았고, 자기가 어떻게 해 나온 것도 알았고, 후일에 어떻게 될 것도 알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도 알았고, 모든 걸 거기에서 비춰봐서 다 알게 되고 그때에 눈도 뜨고, 즉 말하자면 불가에서 말하듯이 천안통으로 모든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흰백을 가져와서 자기도 살고 남편도 살고, 그래가지고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면서 참, 어떻게 행을 했을까?

그분은 몸으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악하게 하는 사람을, 즉 말하자면 왜, 애들 만화영화 있죠? 만화영화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현실로, 무전통신기와 광선, 레이저 광선이 있는 거를 보세요. 그게 그걸로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신하들은 다 놔주고 나쁜 사람들은 다 쳤답니다, 그 부인이 말입니다. 앉아서 그렇게 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도 역시 뒷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나서서도 봐주었다는 얘깁니다. 나중엔 온데간데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마는 절로 들어가서 고승이 됐다 합니다.

그때에는 칼이나 창으로 싸우고 했지마는 지금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공중에서 싸우지 않으면 지금 육군이나 또는 공군이나 해군이나 군부가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린 삽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의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마는 다른 어떤 혹성에서도 그럴지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도리를 알아야 앉아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수백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야 할 때에 그건 죽이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무명만 쳤을 뿐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즉 흰백을 또다시 내보내서 수련을 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죽여도 살리는 거, 살려도 살리는 거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인연이 없다 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인연이 있겠습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 할 수 없다고, 건질 수 없다고 한 것이, 마음에서 떠나면 인연이 없는 겁니다. 구제가 되지 않고요. 또 지금 현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배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도 아주 우리 반쪽을 사이좋게 소련과 더불어 나누어 가진 겁니다. '나는 반을 가질 테니 너도 반 가져라.' 무슨 물건처럼 말입니다. 사탕 반 조각 쪼개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생각한다면 대의적인 생각을 떠나서 국내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는 참 처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콧방귀 탁 뀌고 껄껄 웃으리만큼 돼야!

또 깨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요령만 알면 된다, 급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도에 따라서 크면 큰 대로 쓸 수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쓸 거면 육지에서 쓰고, 공중에서 쓸 거면 공중에서 쓰고, 물에서 쓸 거면 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앉아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직접 보조를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가시밭도 자갈밭도 아주 험한 진 구덩이도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옛날에 수억겁 전에 사람 하나 만나기가, 사람 하나 되기가 힘들었거든. 그때에 사람이 몇백 리에서 하나 났으면 또 몇백 리 건너에서 하나 나고,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그렇게 수두룩하게 난 게 아니라 백 년에 하나 나기 어려울 만치 그렇게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지금까지 내려와서 형성된 이 인간의 밟힘이 얼만큼 아팠었나.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까지 모습을 바꿔가면서 진화돼서 이날까지 왔던 거라면 그냥 갈 수는 없죠. 수억겁 전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화돼서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잠재의식 테이프에 살아온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모두 둘이 아니고, 모두가 형제고 부모고 자식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말입니다, 그건 뭐 중간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지금도 피를 흘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쫓기고 쫓고, 또 우리도 역시 쫓기고 쫓고 밀려나고 이렇게 살아나오는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자리에 지금 태어나서, 한국이라는 이 자리에 태어나서 한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참 정당하게 또 편리하게 화목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콧방귀 탁 뀌고 껄껄 웃으리만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닌 그 뜻을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그 잠재의식 테이프에 다 감긴 그것이 착 나오는 대로, 저 스크린 돌아가듯이 나오는 그것을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처참하게, 나와 더불어 같이 걸어왔나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누구를 보고 그냥 악하게 할 수가 없고, 누구를 보고 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보고 때릴 수가 없고, 누구를 보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무지렁이같이 그냥 순해 터진 양처럼 그렇게 사느냐? 아닙니다. 요만한 거 하나, 싸래기 반토막 하나 에누리가 없이 살면서도 그렇게 선명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 가지 맛이 나도록 말입니다. 과일이 만 가지 맛이 난다면 만 가지 향내도 날 것이고 또 무르익는다면 여러분이 전부 말없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제 나무에서 제 과실이 열리게 해서 무르익게 해서, 바로 자기가 맛을 본다면 그 과실 하나에서 맛이 만 가지가 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산에 가면 산맛이 나고 들에 가면 들맛이 나고 꽃을 보면 꽃맛이 나고 죽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꽃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벌레하고도 얘기하고. 죽은 사람들 전체, 전부와 얘기할 수 있어야 회전이 되고 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앉아서 뭘 어떻게 하든지 하죠.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수억겁 전년에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석존이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왜 멀리 두십니까? 내 주인공 하면 그 속에 석존이나 일체제불이 다 계신 것을, 일체 조상들이 다 계신 것을 구태여, 왜 멀리 바깥으로 내놓고 선 찾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잘 깊이깊이 생각하셔서 기복을 떠나시면서 자성(自性), 자신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종무원 055)943-6570 / 중부종무원 043)648-8942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불자 세상보기

이 강 렬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거꾸로 가는 '상아탑' 풍속도

문화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문화가 뭐 별거냐'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구태여 무슨 문화, 무슨 문화 하며 문화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점에서 보자면 문화에 대해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그 불편함은 말하자면 가볍고 천박한 짓거리이다.

세계는 날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은 계속되는데도 건강해야할 대학문화가 아직도 전근대적 모습으로 남아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요즘 우리 문화의 특징은 소위 가벼운 문화가 일방적으로 득세하고 있다. 주말 공영방송의 황금시간대는 개그프로가 자리잡은지 오래고 영화관람객은 연간 수천만명에 이르지만 골치아픈 인문학 서적은 겨우 몇백권도 팔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요즈음 DVD를 빌려다 보면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이야기가 있고 예술적 체험이 스며있는 진지한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자극적이고 재미있게만 만든 영화이다. 후자는 청소년들이 주 고객이다.

가벼운 문화에 길들여진 세대들은 영화를 본 후의 감동을 싫어한다. 말하자면 패스트푸드 음식을 선호하듯 자양분이 있는 영화를 기피한다. 복잡하고 따분하게 생각한다. 오로지 감각적이고 자극적이며 깊은 사색이 결여되어있다. 그렇다보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이 무엇이든 재미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로인한 사회적 역기능은 또다른 사회적 천박성과 문화적 불균형을 만들어 낸다.

"남자애들은 팬티차림이 됐고, 여자애들은 면티와 바지만 남겨놓고 외투 등을 모두 벗었어요. 결국 스포츠과학과 신입생들은 모두 거의 옷을 벗은 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옛 정문 앞 큰길에서. 쪽팔리고 싫지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선배들 앞에서 인상쓰면 죽어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말하겠지만 최근 모 대학 스포츠과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어서 놀라게 한다. 이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의 몇몇 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마치 과거 신병훈련소에서나 있음직한 유격훈련식 진흙탕 얼차려와 단체로 엎드려뻗쳐를 했다고 한다. 부끄럽고 걱정스런 문화의 후진성을 엿본다.

예부터 판을 벌여 놀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고유한 심성을 이해못해서도 아니고 집단주의와 신바람이 바탕이 된 젊음의 치기 정도를 이해하지 못해서도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식사를 해도 여럿이 함께하며 차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에 유독 신년회나 동창회, 뒷풀이 같은 모임이 많고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리는 노래방이나 춤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온 이유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놀려면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계기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것이 대중심리와 집단의식으로 자칫 이성을 잃을수도 있다. 그 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폭력이 행사된다. 해마다 기업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입사 경쟁률이 높아지는데다 학교문화까지 잘못되고 있으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다. 이즈음 입시만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가정에서부터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하는 교육 또한 절실하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한다. 마음이 관념의 틀 정도라면 구성원들의 생각이 하나의 세계를 이끈다. 즉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상상력의 소산이다. 그래서 젊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대학 문화는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그런점에서 최근 몇몇 대학에서 있었던 일련의 작태는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불자의 눈

동국대학교가 '최고 대학'을 목표로 하는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취임한 오영교 총장이 숙고하여 마련한 '새 백년 동국을 위한 비전과 전략, 108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다. 오 총장은 이미 취임과 함께 경영부총장과 학사부총장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변화의 폭을 다지며 "내부 고객이 만족하고 외부 고객이 감동하는 월드 와이드 동국"을 강조해 왔다.

'108 프로젝트'는 5개 분야 국내 최고, 3개 분야 세계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108 가지의 과제로 정리된 것이 동국대학교 혁신의 골자인 셈이다. 발표된 내용들은 마치 기업의 생존경쟁을 보는 듯 긴장감을 자아내게 한다. 조계종 종립대학으로서 많은 구태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라는 지적까지 받아 온 동국대고 보면, 오 총장의 혁신 의지는 '신선함'을 넘어 '살벌함'의 경지다.

그러나 지금은 살벌한 분위기에서라도 과감하고 획기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눈높이를 높이지 않으면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것이 경쟁의 법칙이다. 때문에 세칭 일류대들은

동국대 '108 프로젝트' 화합과 협력이 성공 지름길

이미 경쟁 상대를 해외의 명문들로 정하고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 뛰고 있다. 교원 다면 평가제와 성과에 초점을 맞춘 연봉제, 단과대학의 분권형 자율시스템 도입, 행정조직 개편 등은 지금 동국대가 넘지 않으면 더 이상 변화를 모색할 기회조차 없을지 모르는 절박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소의 아픔을 감내하며 조정과 혁신을 하지 않고 발전을 말하는 것은 입 벌리고 앉아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우매함일 뿐이다.

'108 프로젝트'는 동국대학의 발전을 위한 상세하고도 합리적인 로드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학교와 종단 구성원 모두가 한결같이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다. 변화의 바람 앞에서 과거에 집착하는 분위기도 있고 국지적인 이익에 얽매여 전체의 흐름을 두려워하는 축도 없지 않은 듯하다. 그간 꾸준히 발전 모드를 추구해 온 불교대학의 경우도 다소 혼란스러워 한다는 전언이다.

인문학의 위기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교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독자적인 발전방안이 나와야 할 판에 학교 전체의 혁신 분위기에 '덮어쓰기'된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종립대학이란 정체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살피고 챙길 필요가 있는 의견이겠지만, 전체의 변화와 혁신 코드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의 묘가 찾아지길 바란다.

아무리 좋은 길도 가지 않으면 허사다. 가더라도 서로 화합과 협력으로 가지 않으면 끝없는 '샛길'이 만들어지고 종내는 모두가 미로를 헤매게 된다. 인간 번뇌를 상징하는 10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백년의 희망을 담은 숫자로 탈바꿈 한 것부터 학교와 종단 구성원 모두에게 화합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종교자유' 칼럼

3. 국민의 합의, 정교분리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민주화·평등사회 등 거대 담론 속 종교문제 '싹' 자라

종교자유의 문제는 개인의 중요한 인권문제로서 세밀한 점검을 통해 우리 사회에 종교로 인해 부당하게 대접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권력화 되거나 제도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특정종교를 우대함으로써 그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자신의 종교색깔을 지나치게 표출하거나,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산이나 공공장소를 특정종교가 부당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2항의 정교분리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서 정교분리가 처음 확립될 때에는 주로 정치가 종교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여 활용하거나 유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종교가 국가권력과 밀착하여 순수목적을 뛰어넘어 주도력을 행사하거나 세속적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종교를 우대해서는 안되며 공직자나 공인의 종교편향적 언행이나 국가기관과 공공시설에서의 종교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여러 분야에서 특정종교가 정치권과 밀착되어 갖가지 특권을 누려오고 있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서구열강의 문화적 침략과 사회지도층의 역사의식 부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수백 년간 유교가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 스스로도 활기를 잃고 피폐해져 종교적 진공상태가 된 것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종교를 무시하는 서양종교의 오만한 입성을 부추긴 셈이 되고 말았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서양종교에 대응할 유일한 고등종교인 불교마저 사회성을 상실하도록 만든 상황은 서양종교가 아무런 거름장치 없이 모래땅에 물붓기식으로 빨려 들어오도록 빌미를 제공하였고, 서구문물, 특히 교육과 의료 부문 속에 묻혀 들어오는 과정에서 친서구적 사회지도층들에 의해 각별한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으면서 그동안 초법적, 위헌적 선교행위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 잘못된 관행은 무소불위의 기득권처럼 굳어져 이제는 그런 행위들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잊게 만드는 사회병리로까지 발전하여 종교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씨앗으로 남게 되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1월 23일 부산에서 열린 교권수호대회 모습.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이다. 특히 지난 20여 년 간 '민주화'를 통해 참정권, 의사 표현의 자유 등 국민 주권을 확인하였고, '투명화'를 통해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하는 장치가 뿌리내리와 투명화, 그리고 평등사회'라는 거대담론에만 매달려 온 나머지 오히려 국민의 의식 수준과 요구 수준이 높아진 사실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개인적이고 은밀한 자유 · 평등 과제인 종교자유 문제와 그에 따른 심각한 인권유린 현상, 그리고 종교집단의 권력화에 밀린 정교분리의 헌법정신 훼손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감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큰 틀에서 방향은 잡혔다고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불평등하며 독선적인 분야가 버젓이 남아있는 것을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교문제이며, 사회 흐름과 무관하게 특권층 의식을 버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변화가 더딘 곳이 종교계이다.

정부도 종교계와는 가급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상책으로 알고 있는 반면, 일반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종교계의 반시대성, 반인권성에 대한 비판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종교 문제가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마지막 분야일지 모른다.

우리나라 같이 남북 · 지역 · 이념 · 계층 · 세대 · 빈부 · 남녀 등 각종 갈등구조가 중층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에서 잠재적 폭발 가능성이 많은 종교 갈등마저 미리 예방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종교과잉의 우리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종교로 세상을 말해왔지만 이제는 세상으로 종교를 말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과 내실 있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그동안 '민주화와 투명성' 등의 사회적 과제에 가려져 잠시 미루어져 왔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와 같은 개인적인 양심과 인권의 문제, 그리고 다종교사회의 공존원리에 대한 추구를 우리 사회의 진지한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3월부터 한시적으로 회비를 대폭 할인(보시)해 드립니다.
■ 大幸,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www.bexpo.org

무료입장

우리 불교와의 특별한 만남

2007한국불교박람회

KOREAN BUDDHISM EXPO 2007

3월 22일(목) ~ 25일(일),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 주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02)706-3493
-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진흥원

- **전시내용 :** 사찰건축, 불교용품, 전통공예품, 차 · 전통식품, 다기 · 다구, 장례문화 등
- **체험프로그램 :** 혜안스님 서각체험, 도예체험, 연등만들기체험
- **문화행사 :** 범패시연, 선무도시연, 문화공연 등

한국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7한국불교박람회**는 한국불교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문화, 산업 전시회! 한국불교의 모든 문화역량을 체험할 수 있는 **2007한국불교박람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